

2023-CR-02

작은연구 좋은서울 23-03

서울시 청년의 사회적 고립지수 도출과 생활환경 분석을 통한 정책 제언

정하림



**서울시 청년의 사회적 고립지수 도출과
생활환경 분석을 통한 정책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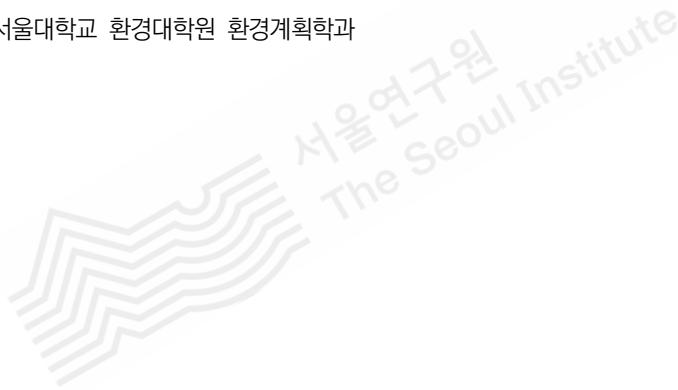


연구책임

정하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연구진

김진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목차

01 연구의 개요	1
1_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_연구의 구성 및 분석틀	3
02 청년 사회적 고립의 의미와 특성	6
1_사회적 고립의 정의와 주요 개념	6
2_청년 사회적 고립의 특성과 주요 요인	9
03 서울시 청년의 사회적 고립지수 도출 및 주요 특징 분석	12
1_청년 사회적 고립의 특성 분석	12
2_서울시 청년의 사회적 고립지수 도출(행정동별)	16
3_서울시 청년의 사회적 고립지수 도출 결과 요약 및 정리	29
04 서울시 청년의 사회적 고립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 생활환경 요인 도출	31
1_서울시 청년의 사회적 고립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 생활환경 요인 도출	31
2_서울시 청년의 사회적 고립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 생활환경 요인 분석	36
05 서울시 사회적 고립 청년의 심층 인터뷰 결과	43
1_사회적 고립 심층 인터뷰 개요	43
2_사회적 고립 심층 인터뷰 내용 및 주요 합의	45
06 연구의 결론	60
1_연구의 요약	60
2_정책적 합의	62
참고문헌	64

표 목차

[표 2-1] 사회적 고립 정의	7
[표 2-2] 사회적 고립의 주요 요인	11
[표 3-1] 주요 조사 내용	13
[표 3-2] 응답자 특성	13
[표 3-3] 서울시 청년 고립·은둔 특성 로짓 결과 분석	14
[표 3-4] 서울시 청년 사회적 고립 특성 주요 분석 결과	15
[표 3-5] 세부 항목	16
[표 3-6] 사회적 고립지수 도출을 위한 변수 구성	17
[표 3-7] 사회적 고립 유형별 가중치	19
[표 3-8] 경제적 불안정성 고립지수	21
[표 3-9] 사회활동 고립지수	23
[표 3-10] 고립형 생활 고립지수	25
[표 3-11] 사회적 관계 고립지수	27
[표 3-12] 종합 고립지수	29
[표 3-13] 주요 결과 요약	30
[표 4-1] 종속 및 설명변수	34
[표 4-2] 종속변수 및 설명변수의 기초 통계	35
[표 4-3] 경제적 불안정성 모형	37
[표 4-4] 사회활동 모형	38
[표 4-5] 고립형 생활 모형	39
[표 4-6] 사회적 관계 모형	41
[표 4-7] 종합 모형	42
[표 5-1] 사회적 고립 청년 인터뷰 대상지 선정	44

[표 5-2] 심층 인터뷰 질문 구성	45
[표 5-3] 인터뷰 대상자 특성	46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 분석의 흐름	4
[그림 3-1] 경제적 불안정성 측면의 사회적 고립지수 분포	20
[그림 3-2] 사회활동 측면의 사회적 고립지수 분포	22
[그림 3-3] 고립형 생활 측면의 사회적 고립지수 분포	24
[그림 3-4] 사회적 관계 측면의 사회적 고립지수 분포	26
[그림 3-5] 종합 사회적 고립지수 분포	28

01. 연구의 개요

1_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청년기는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시기에 청년들의 상당수가 취업, 직장생활, 결혼, 가족형성과 같은 활발한 사회활동을 통해서 사회 내 주요한 구성원으로 발전해 가기 때문이다(김재희·박은규, 2016). 또한 청년기는 중년, 노년기로의 가교 역할을 하는 주요한 생애전환의 시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생애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이용호·박로사, 2021).

그러나 최근 한국 사회의 청년들은 장기화되는 취업난과 주거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학업-취업-결혼으로 이어지던 이행단계가 단절되고 오히려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비/자발적인 사회적 고립과 단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철경·서보람, 2020).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은둔·고립 청년에 대한 실태 분석(2022)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만 19~39세 청년 중 4.5%에 달하는 약 13만 명이 고립·은둔 상태이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이 더 이상 개인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임을 시사하며, 청년의 사회적 고립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사회적 고립은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거나 맺고 있는 관계의 양이나 질의 수준이 낮으며, 사회적 지지가 결여된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Marsden, 1987; 이민아, 2013; 이상철, 2017), 단편적인 근거들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사회, 주거, 생활 등 복합적이고 광범위한 배경을 토대로 발생한다(정은주·정봉현, 2017). 따라서 최근 청년층에서 두드러지게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고립 문제는 개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개인이 처한 물리적 환경과 같은 지역사회의 맥락적 조건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선도적인 청년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는 2021년 12월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청년들의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 고용 등 단일한 영역에서의 정책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 청년이 처한 지역 및 사회적 맥락을 고려한 다각적이고 종합적 정책적 접근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 문제를 개인이 처한 지역사회의 맥락적 조건과 함께 고려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개인 생활 특성을 바탕으로 서울시 청년의 고립지수를 지역별로 산출하고, 지역사회의 조건을 반영하는 지역의 도시 생활환경 자료를 활용하여 서울시 청년의 사회적 고립 완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및 의의

본 연구는 서울시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 청년의 사회적 고립지수를 지역별(행정동 단위)로 산출하고 이와 함께 도시의 생활환경을 분석하여 청년의 사회적 고립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 생활환경 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다른 연령대와 구별되는 청년의 사회적 고립의 배경과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의 사회적 고립지수를 행정동 단위로 세밀하게 산출함으로써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주거, 고용, 사회적 관계, 생활 등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하여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 생활환경의 특성(주거, 일자리, 여가문화기회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청년의 사회적 고립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 및 정책의 개선점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서울시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의 사회적 고립지수 산출 및 사회적 고립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 생활환경 요인을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서울시 청년의 사회적 고립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적이면서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2_연구의 구성 및 분석틀

1) 연구의 범위 및 분석 대상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이며, 서울시 424개 행정동을 기준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사회적 고립의 경우 사회적 관계의 단절 및 정서적 교류의 부재 등과 같이 사회적 네트워크의 단절로 야기되므로 사회적 고립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접근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행정동 단위로 청년의 사회적 고립 지수를 유형별로 산출하고, 영향 요인을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지역별 맞춤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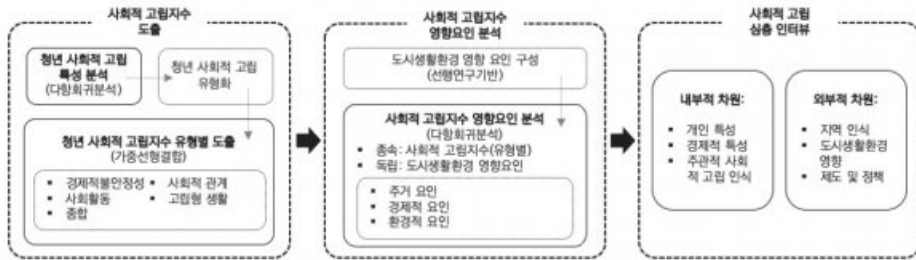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청년에 대해 공통적으로 정의되거나 합의된 연령적 기준은 없으며, 정책 및 연구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청년을 정의하고 있다.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19~3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청년기본조례’에서는 청년을 만 19~39세 이하로 비교적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 또한 주요 청년 정책별 대상 연령을 살펴보면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정책의 경우 청년 대상자를 19~29세로 한정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경우 최근 청년들이 취업난과 주거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성인으로서 완전한 독립에 이르는 시기가 늦춰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연구 대상인 청년을 보다 폭넓게 정의하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 서울시가 진행한 ‘은둔·고립 청년 실태조사(2022)’에서 조사 대상을 19~39세로 선정한 점을 고려하고 ‘서울특별시청년기본조례’ 기준 등을 참고하여 분석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 서울시 청년의 고립지수 산출을 위해 사용하는 ‘서울 시민생활 데이터’의 경우 연령을 5세 단위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분석대상자인 청년을 20~39세의 서울 거주 청년으로 정의하였다.

2)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는 서울시 청년의 사회적 고립 지수를 지역별(행정동 단위)로 산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산출된 지역의 사회적 고립지수를 바탕으로 청년의 사회적 고립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 생활환경 요인을 도출하는 것이다. 끝으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의 사회적 고립도가 높은 관심 지역을

선별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중에서 주관적 사회적 고립감이 높은 청년을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의 정도와 영향 요인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이와 같은 분석의 흐름은 아래의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연구 분석의 흐름

사회적 고립지수 도출을 위해서는 청년의 사회적 고립의 특성을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유형화하여 유형별 사회적 고립지수를 도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도출한 사회적 고립지수를 토대로 사회적 고립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 생활환경 영향 요인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청년 사회적 고립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 경제, 환경적 요인을 분석하고 청년의 사회적 고립 완화를 위한 지역 정책 및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끝으로 앞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고립지수가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중 사회적 고립감이 높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데이터 분석에서 밝히기 어려운 개인적인 요인 등을 추가로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청년 사회적 고립의 영향 요인을 다각적인 관점에서 밝히고 종합적인 정책 및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의 기대효과

본 연구의 예상 결과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청년의 사회적 고립 정도가 심각하거나 위험한 지역을 선별하고 지역별 영향 요인에 따라 차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청년의 거주 비율이 높은 관악구의 경우 도시 생활환경에 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사회적 고립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이 다른 지역과 구분되거나, 영향 정도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사회적 고립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분석을 통해서 사회적 고립 유형 및 지역별 사회적 고립 완화를 위한 차별적 대응 및 세밀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인터뷰를 통한 사회적 고립의 심리적, 정서적 요인을 도출하여 개인의 특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고립의 영향 요인을 지역 수준에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지역단위에서 청년을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사회적 고립을 극복 및 방지하기 위한 단계별 안전망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서울시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의 사회적 고립지수 산출 및 사회적 고립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 생활환경 요인을 분석하여 서울시 청년의 사회적 고립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적이면서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현 청년 세대가 마주하고 있는 시급한 사회적 문제를 발견하는 데 기여하고 청년 세대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 회복 및 결혼과 가족 형성 등 생애주기 이행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02. 청년 사회적 고립의 의미와 특성

1_사회적 고립의 정의와 주요 개념

본 장에서는 사회적 고립의 주요 개념과 정의를 살펴보고 본 연구에서 정의한 사회적 고립의 정의에 대해 소개한다. 또한 사회적 고립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은둔형 외톨이와 니트(NEETs)의 개념에 대해서 소개하고 사회적 고립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한다.

1) 사회적 고립의 의미와 주요 개념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직 합의된 정의가 없으며, 연구의 목적이나 정책의 방향성 등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나, 공통적인 접근을 살펴보면 주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거나 사회적 연결성의 수준이 낮은 것을 의미하며, 사회적 고립이 개인의 신체 및 정신적 건강과도 밀접한 영향 관계에 있음을 보이고 있다(박찬웅·배영, 2016; 이민아, 2013).

사회적 고립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사회적 관계로부터의 배제라는 점에서 시작되었으며(박찬웅 외, 2020), 주로 사회적 고립을 사회적 연결망,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접촉, 사회적 지지 등의 개념을 이용하여 사회적 고립을 설명한다(황수진 외, 2021; Sansoni et al., 2010).

또한 사회적 고립에 대한 정의는 사회적 고립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도 다르게 정의 될 수 있는데, 정서적 고립이나 외로움(Hawthorne, 2006; Fine and Spencer, 2009), 또는 개인이 인지하는 고립(Cornwell and Waite, 2009; Daniel and Goldston, 2012)과 같이 주관적 고립과 객관적 고립을 구분하여 바라보기도 한다. 사회적 고립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객관적 고립과 달리 주관적 고립에서는 개인의

정서적 외로움과 낮은 사회적 상호작용 등을 포함한다(최지현 외, 2022). 한편 사회적 고립을 외부적 고립과 내부적 고립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기도 한다(Zavaleta, Samuel, & Mills, 2017). 이 경우 외부적 고립은 한 개인이 타인과의 관계망이나 사회적 연결망이 없는 것을 의미하며, 내부적 고립은 내적인 단절 상태에서 사회적 고립에 따라 개인이 느끼는 고립감과 외로움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에 대한 연구(유민상 외, 2021)에서도 사회적 고립을 크게 외부적 고립과 내부적 고립으로 구분하여 접근하였으며, 외부적 고립은 네트워크, 연락, 사회적 지지로부터의 고립으로 바라봤고, 내부적 고립은 주관적 고립감(외로움)으로 분리하여 접근하였다.

[표 2-1] 사회적 고립 정의

출처	정의
Fine and Spencer [2009, p.4]	사회적 고립과 정서적 고립이라는 두 가지 뚜렷한 특성을 가지며, 사회적 고립은 낮은 수준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외로움의 경험이 결합됨으로써 나타남.
Daniel and Goldston [2012, p.288]	다른 사람과의 연결성 부족은 '사회적 지지의 결여, 사회적 네트워크와의 통합 부족 혹은 사회적 고립에 대한 인식'으로 정의함으로써, 실제적인 사회적 지지(객관적)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주관적)를 고려함.
이민아 [2013] 이상철 [2017]	사회적 고립은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거나 맺고 있는 관계의 양이나 질의 수준이 낮으며, 사회적 지지가 결여된 정도를 의미함.
Zavaleta et al., [2014; 2017]	성인 진입기 관점에서 청년의 사회적 고립은 여러 층위(가족, 친구, 학교나 직장, 지역사회)에서 소속감이 박탈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박찬웅 외 [2020, p.47]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자원 및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사회적 관계로부터의 단절로 정의하고, 사회적 고립을 생활차원, 경제적 차원, 정서적 차원 등 세 가지로 구분함.
조미형, 고아라 [2022]	사회적 고립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외출과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음. 사회적 고립 개념은 니트, 은둔형 외톨이 보다 다차원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음.
최지현 외 [2022]	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갖고 싶거나 소속감이 필요하지만, 소속감이 없거나 소속감을 가질 수 없는 상황으로 정의한다.

주 1: 본 표의 내용은 최지현 외(2022)에서 수정 및 보완함.

이 외에도 [표 2-1]과 같이 사회적 고립은 연구의 관점이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최근 많은 연구들은 사회적 고립의 주요 개념에서 다차원적인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박찬웅 외, 2020; Zavaleta al., 2017). 즉, 사회적 고립은 어느 단일

한 하나의 요건이나 조건, 상황에서 발생하는 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외부와 내부적 상황 또는 객관적, 주관적 개념으로 정의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사회적 고립은 사회적 관계의 양적인 면 및 질적인 면과 더불어 사회적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수준을 모두 포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Zavaleta al, 2017).

이에 본 연구에서도 사회적 고립을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회적 고립을 니트 및 은둔형 외톨이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써 사회와 다차원적으로 고립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내부적 고립(주관적 고립감)과 외부적 고립(사회적 지지, 네트워크, 소속감 결여)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2) 은둔형 외톨이와 니트(NEETs) 및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과의 관계

사회적 고립은 은둔형 외톨이 및 니트(NEETs: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차별성이 존재한다. 니트는 고용, 훈련, 진학을 하지 않는 상태로서 지위 중심적 개념에 해당하므로 고용된 상태이거나 훈련, 진학중인 상태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적 고립은 고용된 상태 및 훈련, 진학중인 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니트가 아닌 상태에서도 개인이 느끼기에 사회적 네트워크 및 소속감, 사회적 지지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유민상 외, 2021).

은둔형 외톨이의 경우 행동 중심의 관점에서 바라본 개념으로서 일정기간 이상 밖에 나가지 않는 행동이 지속되는 경우 은둔형 외톨이로 정의할 수 있다. 은둔형 외톨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일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사이토 다마키(2012)로 6개월 이상 외부에 나가지 않고 사회참여를 하지 않는 상태를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로 정의하였다. 하지만 사회적 고립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사회생활 및 외출 여부로 구별하는 은둔형 외톨이와는 구별된다. 즉, 사회적 고립은 니트와 은둔형 외톨이보다 다차원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고립은 외로움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외로움과 동일하지는 않으며(Achterbergh et al., 2020),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가 외로움을 유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고립에서의 외로움은 고독과는 다른 개념으로서, 고독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감정이라면, 외로움

은 비자발적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사회적 관계의 단절과 사회적 지지의 결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서영석 외, 2020). 특히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외로움은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와도 연결되어 사회적 고립을 더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노가빈 외, 2021).

2_청년 사회적 고립의 특성과 주요 요인

본 장에서는 청년기의 중요성과 더불어 청년 사회적 고립의 특성을 밝히고 이를 통해 본 연구가 갖는 중요성과 의의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1) 청년기의 중요성과 의미

오늘날 청년기는 개인의 인생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시기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이 시기에 성인기로의 이행을 위해 취업, 결혼, 가족형성과 같은 중요한 사회 활동을 이어가기 때문이다(김재희·박은규, 2016). 또한 청년기는 중년기, 노년기로의 가교역할을 하는 주요한 생애전환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년기가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청년기의 중요성은 매우 강조된다(이용호·박로사, 2021). 그러나 청년기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회가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변화된 청년의 삶의 방식과 가치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이정봉, 2021). 즉, 현대사회에서는 더 이상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이 하나로 이어지는 과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인기로의 진입이 늦어지거나 지연될 때 무능한 성인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박은주 외, 2020). 이러한 문제로 인해 청년의 삶 전반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등장한 것이 성인 진입기 개념이다(Arenett, 2007).

청년의 사회적 고립은 청년의 성인 진입기 관점에서 취업, 결혼, 가족형성과 같은 사회 활동 중에 가족, 친구, 학교나 직장 등에서 소속감이 박탈된 상태로 볼 수 있다(Zavaleta et al., 2014; 2017). 이 시기의 사회적 고립은 생애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2) 청년의 사회적 고립의 특성과 의미

사회적 고립은 인생의 어느 시기에나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 청년기의 사회적 고립은 중년기나 은퇴하는 노년기의 사회적 고립과는 맥락이 다른 차별점을 갖는다. 가령, 청년의 사회적 고립은 성인으로서 완전한 독립에 이르기 전에 가족과 사회적 관계에서의 배제, 학교에서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배제, 불합리한 노동시장에서의 배제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발생한다는 특징을 보인다(홍진주, 2020; 노가빈 외, 2021). 연령별 사회적 고립을 비교한 연구(Griffin, 2010; Child and Lawton, 2019; Hämming, 2019)에 따르면 청년이 노인에 비해 사회적 고립을 인지할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관계에 대해 더 큰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노인보다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외로움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의 사회적 고립은 생애주기적인 특징에 따라 고립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지만, 다양한 어려움으로 인해 고립에 이르기 도 하며, 이로 인해 고립이 장기화 될 경우 중년, 노년기에도 영향을 미쳐 극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회복했다 하더라도 다시 고립으로 빠지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조미형·고아라, 2022). 따라서 청년의 사회적 고립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단순한 사회적 관계 단절 이상의 복합적인 문제이므로 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지원과 더불어 다양한 유발 요인 분석을 포함한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3) 사회적 고립의 주요 요인

사회적 고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나 여러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청년의 사회적 고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실업과 빈곤, 과거 부정적인 경험 및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조미형 외, 2021).

이와 같은 영향 요인은 생애주기에도 연관이 있는데, 사회적 고립이 생애주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향 요인 또한 생애주기에 따라 다르게 구분할 수 있다. 청년 사회적 고립의 주된 요인이 실업과 퇴직, 친구관계, 이혼 등이라면, 아동기의 경우 주로 아동학대, 가정 폭력과 같은 가정의 요인이 크며, 노년기는 자녀, 배우자, 건강상태, 경제환경 등이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춘남 외, 2018).

이 외에도 사회적 고립은 성별, 연령, 혼인상태, 경제활동, 직업이나 지위 등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박찬웅 외, 2020), 단편적인 근거들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사회, 주거, 생활 등 복합적이고 광범위한 배경을 토대로 발생한다(정은주·정봉현, 2017). 따라서 청년의 사회적 고립 문제는 개인의 특성과 함께 개인이 처한 물리적 환경 등 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표 2-2] 사회적 고립의 주요 요인

출처	사회적 고립의 주요 요인
조미형 외 (2021)	청년의 사회적 고립 관련 요인은 실업과 빈곤, 부정적인 과거 경험 및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요약됨
유민상, 신동훈 & 이민정 (2021)	사회적 고립의 영향 요인은 아동기의 부정적 생애 경험이나, 청년기에 경험하는 부정적 경험 등에 영향받을 수 있음. 청년기 영향은 취업실패, 노동시장에서의 부적응, 장기 실업 상태 등과 같은 노동시장 요인이 있음
박찬웅 외 (2020)	사회적 고립의 주요한 영향 요인들은 성별, 소득, 연령, 혼인상태, 경제활동 유무나 직업 지위 등에 해당함
정은주·정봉현 (2017)	사회적 고립은 단편적인 근거들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사회, 주거, 생활 등 복합적이고 광범위한 배경을 토대로 발생함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사회적 고립의 주요 요인들을 토대로 서울시 청년의 사회적 고립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청년의 사회적 고립 지수를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청년의 사회적 고립의 특성에 따른 사회적 고립지수 도출 및 영향 요인을 밝힘으로써 청년의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및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03. 서울시 청년의 사회적 고립지수 도출 및 주요 특징 분석

1_청년 사회적 고립의 특성 분석

본 장에서는 서울시 청년의 사회적 고립의 주요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청년의 사회적 고립지수를 도출한다.

1) 서울시 청년 사회적 고립 특성 분석

(1)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서울시 청년 사회적 고립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난 2022년 서울시에서 실시한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는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의 실태 확인 및 지원 정책을 위한 대응 마련을 위해 실시한 조사로 가구단위의 온라인 조사를 통해 진행되었다. 서울시 가구분포에 맞춰 표집하였으며, 만 19~39세에 해당하는 청년 가구원이 포함된 서울시 거주 가구의 가구주 혹은 가구주 배우자 5,5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응답자 중 486명이 고립·은둔 청년에 해당한다.

주요 조사 항목은 크게 고립·은둔 성향(근로상태, 외출 정도, 교류빈도, 고립 정도 등), 생활 실태(생활패턴, 집에서 하는 활동, 평소 식생활, 건강상태 등), 지원 필요 사항(필요한 도움, 지원 방식 및 기간, 지원사업 참여 여부 등)과 함께 응답자 일반 사항(성별, 연령, 거주지역, 혼인상태, 최종학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1] 주요 조사 내용

항목	내용
표본 추출 단위	• 서울시 만 19~39세 청년 개인
표본 추출 방법	• 성*연령 변수를 활용하여 표본 설계 • 행정안전부의 “2022년 연령별 주민등록 인구통계” 데이터 이용
조사 기간	• 2022.08.25.~2022.09.21.
조사 방법	• 수행사 보유 패널 및 고립·은둔 청년 지원기관*을 이용하는 청년 대상 온라인 조사
응답자	• 만 19~39세 청년 5,531명 (고립·은둔 청년:486명)
조사항목	• 응답자 선정 질문 (성별, 연령, 거주지역 등) • 고립·은둔 성향(취업상태, 외출 정도, 교류빈도 등) • 생활 실태(평소 활동, 건강상태 등) • 지원 필요 사항(도움 및 지원 방식, 참여 여부 등) • 응답자 일반사항(최종학력, 혼인상태 등)

[표 3-2] 응답자 특성

항목	주요 내용 및 응답자 특성	
주요 응답자 특성	남성	2,680명(48.6%)
	여성	2,833명(51.4%)
	만 19~24세	676명(12.3%)
	만 25~29세	1,710명(31.0%)
	만 30~34세	1,530명(27.8%)
	만 35~39세	1,597명(29.0%)
	1인가구	1,165명(21.1%)
	다인가구	4,348명(78.9%)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청년의 사회적 고립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를 활용하였으며, 이를 위해 앞서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사회적 고립 요인을 토대로 서울시 고립·은둔 여부에 대한 로짓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 및 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으며 선행연구를 토대로 청년의 사회적 고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사회적 관계’, ‘개인적 요인’ 등의 변수를 구성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3-3] 서울시 청년 고립·은둔 특성 로짓 결과 분석

구분	변수명	Odds Ratio(Std.Error)
경제적 요인	성인 이후) 원하는 시기 구직 실패 경험 여부	1.985**(0.492)
	현재 일을 하고 있음 여부	0.569**(0.125)
	성인 이후) 원하는 직장 취업 실패 경험 여부	0.799(0.193)
사회적 교류	친구 교류 정도	0.270***(0.025)
	직장/학교 교류 정도	0.605***(0.040)
사회적 관계	SNS 대화 여부	1.113(0.197)
	지난 2주간 일상 대화_사람 수	0.958**(0.020)
	감정_도움 요청 어려움	1.903***(0.222)
	도움 요청 가능_중요한 일	0.330***(0.091)
외출 정도	도움 요청 가능_급한 일	0.223***(0.062)
	평소 잦은 외출 정도 여부	0.291***(0.057)
주관적 건강	평소 잦은 외출 정도 여부	0.291***(0.057)
	주관적 건강상태	1.002(0.105)
가족 1인 가구	지난 2주_곤란한 일_기분 저하	1.372**(0.137)
	가족 친밀도	1.026(0.134)
	가족과 대화 정도	0.987(0.128)
개인특성	1인 가구 여부	0.625**(0.138)
	성별	0.867(0.151)
	나이	1.010(0.019)
	결혼	0.355***(0.104)
외부 특성	교육 수준	0.928*(0.042)
	주거 유형(연립/다세대)	1.418*(0.269)

분석결과 서울시 청년의 고립·은둔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경제적 요인, 사회적 관계 및 교류와 같은 사회활동이며, 이외에 외출 정도, 감정, 1인 가구와 같은 개인 특성과 함께 주거 유형과 같은 특성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크게 고립·은둔 증가 요인과 감소 요인으로 나뉘어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고립·은둔을 증가시키는 요인을 살펴보면 ‘구직 실패 경험’, ‘도움 요청 어려움’, ‘곤란한 일_기분 저하’, ‘거주 주택 유형’ 변수가 청년의 고립·은둔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구직의 경우 원하는 시기의 구직 여부가 사회적 고립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경제적 요인의 중요성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도움 요청’과 같은 사회적 관계와 함께, 거주 주택 유형과 같은 환경 요인이 고립·은둔에 영향을 미치므로 개인의 사회적 관계와 더불어 외부 환경 요인도 주요하

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반면, 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감소시키는 요인은 ‘친구 교류’, ‘직장/학교 교류’와 같은 사회 활동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필요시 ‘도움 요청’이 가능한지 여부 및 ‘대화하는 사람 수’가 청년의 고립·은둔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관계가 고립·은둔 감소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실내 생활보다 외출과 같은 실외 활동이 고립·은둔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나 외부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4] 서울시 청년 사회적 고립 특성 주요 분석 결과

증가 (+)	고립·은둔 여부	감소(-)
성인 이후_원하는 시기 구직 실패 경험		근로
		친구 교류
		직장/학교 교류
감정_도움 요청 어려움		도움 요청 가능_중요한 일
		도움 요청 가능_급한 일
지난 2주_곤란한 일_기분 저하		지난 2주간 일상 대화_사람수
		평소 찾은 외출 정도
		1인가구
거주 주택 유형(연립/다세대)		교육 수준
	결혼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고립·은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크게 ‘경제적 불안정성’, ‘사회활동’, ‘고립형 생활’, ‘사회적 관계’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유형별로 서울시 청년의 사회적 고립 지수를 산출하고 유형별 차이점 및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2_서울시 청년의 사회적 고립지수 도출(행정동별)

본 장에서는 서울 시민생활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울시 청년의 사회적 고립지수를 산출하고자 한다. 우선 사회적 고립지수는 앞서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실태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4가지(경제적 불안정성, 사회활동, 고립형 생활, 사회적 관계)측면과 이를 종합한 지수로 구분한다. 이후 각 측면의 사회적 고립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측면에 적합한 변수를 투입하여 산출하고, 각 지수별 특징을 확인하고자 한다.

1) 사회적 고립지수(social isolation index) 도출

(1) 서울 시민생활 데이터

청년의 사회적 고립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에서 제공하는 ‘서울 시민생활 데이터’ 자료를 활용한다. 해당 데이터는 서울시와 SKT 통신사가 공공빅데이터와 통신데이터 가명결합을 통해 추정한 서울시 행정동(424개) 단위 성별, 연령별 1인가구와 서울시민의 생활 특성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해당 자료는 증가하는 1인가구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1인 가구를 행정동과 성 및 연령으로 세분화하고 이들의 생활 특성을 커뮤니케이션, 이동, 여가, 생활, 재정 등의 유형으로 나누어 매월 단위로 제공하고 있다. 각 유형은 [표 3-5]와 같은 세부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동별 20~39세에 해당하는 남/여 대상 데이터를 추출하여 연구에 활용한다.

[표 3-5] 세부 항목

유형	세부 항목
커뮤니케이션	월평균 통화량, 월평균 문자량, 월평균 통화대상자 수, 월평균 문자 대상자 수, 월평균 SNS 사용 횟수
재정	월평균 소액결제 사용 횟수, 월평균 소액결제 사용금액, 최근 3개월 내 요금 연체 비율
이동 (평일/휴일)	야간 상주지 변경 횟수, 주간 상주지 변경 횟수, 평일 총이동거리 합계, 휴일 총이동거리 합계, 평일 총이동 횟수 등
기타이동	평일 출근 소요시간, 평균 근무시간, 월평균 지하철 이동일수
영상서비스	월평균 동영상/방송 사용량, 월평균 유튜브 사용일수 등
생활서비스	월평균 게임 사용량, 월평균 금융사용량, 월평균 배달 사용일수 등

(2) 사회적 고립지수 도출을 위한 변수 구성

앞서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도출한 청년의 고립·은둔 영향 요인은 크게 4가지(경제적 불안정성, 사회활동, 고립형 생활, 사회적 관계)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통화량, 외출 횟수, 요금 연체 여부 등 29개의 세부 통신정보를 제공하는 서울 시민생활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울시 청년의 사회적 고립지수를 산출하고자 한다(표 3-6).

[표 3-6] 사회적 고립지수 도출을 위한 변수 구성

구분	사회적 고립 유형	분석 변수	고립 영향 방향성
사회적 고립 요인	경제적 불안정성	요금 연체 비율, 야간 상주지 변경 횟수, 소액결제 금액, 소액결제 횟수	+
	사회활동	주간 상주지 변경 횟수, 평일/휴일 이동 횟수, 지하철 이동일 수, 근무시간	-
	고립형 생활	동영상(웨이브, 왓챠, 티빙 등 ott 서비스) 방송 서비스 사용일수, 게임 이용 시간, 평일/휴일 집 체류시간	+
	사회적 관계	통화량, 문자량, 통화/문자 대상자 수, 카카오톡 사용 인구수	-
	종합	모든 분석 변수 포함	

경제적 불안정성 측면의 사회적 고립지수는 요금 연체 비율, 야간 상주지 변경 횟수, 소액결제 금액, 소액결제 횟수 변수를 사용하여 구성한다. 경제적 불안정성을 구성하는 변수 중 ‘소액결제’는 특히 1인가구 저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나고(강승현, 2021), 청년층의 경우 소액결제가 통신요금 연체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이종현·양범수, 2019) 청년층의 소액결제 이용을 경제적 불안정성 측면으로 포함하였다.

사회활동 측면의 사회적 고립지수는 주간 상주지 변경 횟수, 평일/휴일 이동 횟수, 지하철 이동일 수, 근무시간 변수를 사용하여 구성한다. 변수 중 ‘근무시간’의 경우 본 연구에서 청년층은 20~30대를 모두 포함하는 만큼, 단순히 근무시간 자체를 기준으로 경제적 불안정성을 논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근무시간을 사회활동으로 보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고립형 생활 측면의 사회적 고립지수는 동영상 방송 서비스 사용일수, 게임 이용 시간, 평일/휴일 집 체류시간 변수를 포함한다. 이를 통해 야외 활동 또는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보다 실내에 체류하면서 온라인 활동에 더 중점을 두는 생활패턴을 통해 물

리적인 고립 측면을 고려하고자 한다.

사회적 관계 측면의 사회적 고립지수는 통화량, 문자량, 통화/문자 대상자수, 카카오톡 사용 인구수 변수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해당 변수들은 타인과의 소통 패턴을 통해 사회적 관계 형성의 현황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게 적용될 것이다.

2) 사회적 고립지수 산출 과정

사회적 고립지수의 산출은 [표 3-6]의 사회적 고립 유형에 적합한 변수들을 활용하고, 산출 방식은 김현호 외(2021)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였다. 사회적 고립지수 산출 과정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 시민생활 데이터에서 서울시 행정동별 20~39세, 남/여 대상 데이터를 추출한다. 다만 서울 시민생활 데이터는 각 행정동별 총인구를 고려하지 않고 제공되기 때문에 행정동별 인구수를 활용하여 모든 변수에 인구 가중치를 주고, 성별/연령별로 제공되는 데이터를 각 행정동별로 합산한다. 이후 합산한 값은 다시 총인구수로 나누어 행정동의 인구 규모를 통제하도록 한다. 둘째, 각 변수의 측정 단위가 상이하기 때문에 모든 변수의 측정 단위를 표준화 과정을 통해 동일한 척도로 변환한다. 표준화를 위해 점수범위화 방식을 적용하여 모든 원자료의 값을 0과 1 사이의 값으로 변환하였다. 점수범위화 방식은 <식 1>과 같다. 다만 분석 변수에서 고립 영향 방향성을 통일하기 위해 사회활동과 사회적 관계 고립 유형은 1-변숫값 변환을 수행하였다.

$$X_{ij} = \frac{X_{ij} - X_j^{\min}}{X_j^{\max} - X_j^{\min}} \quad (0 \leq X_{ij} \leq 1) \quad \langle \text{식 1} \rangle$$

셋째, 요인 분석(factor analysis)을 이용하여 표준화된 지표에 상대적 중요도를 반영한 가중치(weight)를 부여한다. 표준화된 지표를 요인분석을 통해 얻은 지표별 공통성과 고유치를 계산하여 가중치를 도출한다. 이때 가중치는 각 변수의 공통성을 요인들의 고유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 해당 방법을 통해 가중치를 산출하면 각 요인들의 공통분산을 토대로 변수 간 상대적인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표 3-7]은 각 사회적 고립 유형별 가중치를 정리한 것이다. 넷째, 가중선형 결합 방법을 적용하여 행정동별로 표준화된 각 지표에 가중치를 곱하고 이들을 모두 합산함으로써 사회적 고립지수를 도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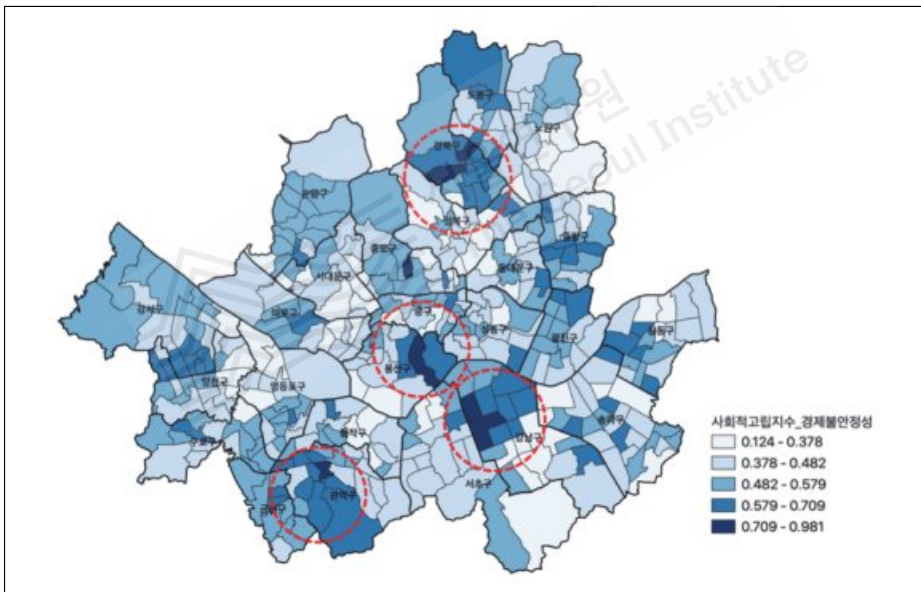
[표 3-7] 사회적 고립 유형별 가중치

구분	분석 변수	가중치
경제적 불안정성	요금 연체 비율	0.472
	야간 상주지 변경 횟수	0.047
	소액결제 금액	0.441
	소액결제 횟수	0.040
사회활동	주간 상주지 변경 횟수	0.186
	평일 이동 횟수	0.336
	휴일 이동 횟수	0.244
	지하철 이동일수	0.196
	근무시간	0.039
고립형 생활	동영상(웨이브, 왓차, 티빙 등 ott 서비스) 방송 서비스 사용일수	0.247
	게임 이용 시간	0.230
	평일 집 체류시간	0.269
	휴일 집 체류시간	0.253
사회적 관계	통화량	0.158
	문자량	0.045
	통화 대상자수	0.326
	문자 대상자수	0.328
	카카오톡 사용 인구수	0.143
종합	요금연체 비율	0.063
	야간 상주지 변경 횟수	0.061
	소액결제 금액	0.044
	소액결제 횟수	0.030
	주간 상주지 변경 횟수	0.067
	평일 이동 횟수	0.077
	휴일 이동 횟수	0.069
	지하철 이동일 수	0.043
	근무시간	0.042
	동영상(웨이브, 왓차, 티빙 등 ott 서비스) 방송 서비스 사용일수	0.048
	게임 이용 시간	0.066
	평일 집 체류시간	0.065
	휴일 집 체류시간	0.052
	통화량	0.048
	문자량	0.033
	통화 대상자수	0.076
	문자 대상자수	0.077
	카카오톡 사용 인구수	0.038

3) 사회적 고립지수 도출 결과

(1) 경제적 불안정성 고립지수

지표별 가중치를 활용하여 경제적 불안정성 측면의 사회적 고립지수를 도출한 결과는 [그림 3-1]과 같다. 경제적 불안정성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은 강남구, 용산구, 강북구, 관악구 등을 중심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성북구, 서대문구, 노원구 등은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3-8). 논현 및 역삼, 이태원, 신림 등 상권이 발달한 지역을 중심으로 청년의 경제적 불안정성 측면의 고립지수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현상은 상권이 발달한 지역이 임대료가 높은 경향이 있으므로 소득 지출에 있어서 주거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데 따른 영향으로 추측된다. 또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생활양식(life-style)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림 3-1] 경제적 불안정성 측면의 사회적 고립지수 분포

[표 3-8] 경제적 불안정성 고립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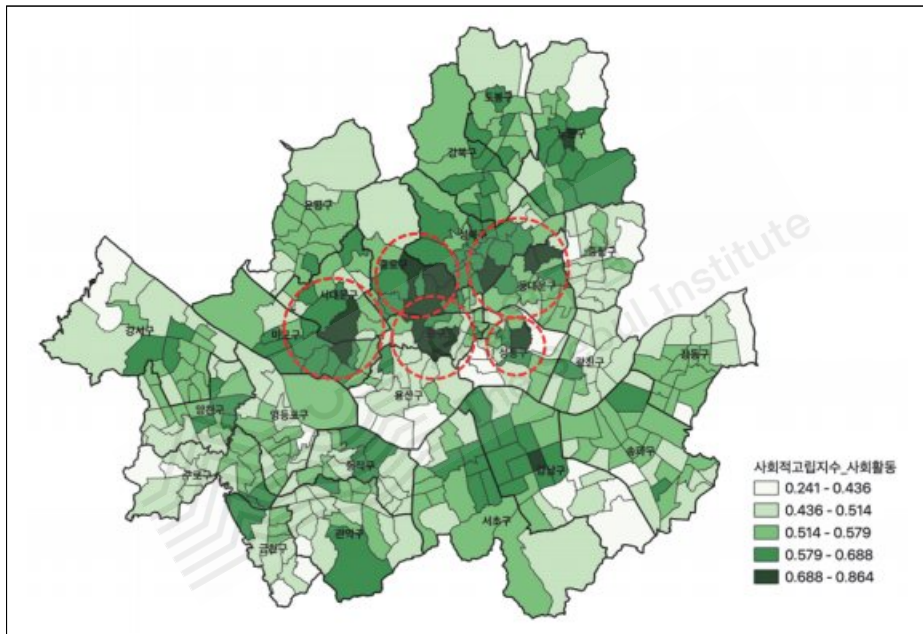
요인	순위	구	행정동	지수값	
경제적 불안정성 고립지수	1	강남구	논현 1동	0.981	
	2	강남구	역삼 1동	0.859	
	3	강북구	수유 3동	0.825	
	4	용산구	이태원 1동	0.791	
	5	용산구	이태원 2동	0.787	
	6	용산구	보광동	0.746	
	7	관악구	서원동	0.744	
	8	종로구	가회동	0.735	
	9	강북구	수유1동	0.733	
	10	영등포구	신길4동	0.709	
	...				
	415	강동구	암사3동	0.277	
	416	성북구	종암동	0.268	
	417	양천구	신정2동	0.268	
	418	용산구	이촌1동	0.262	
	419	송파구	오륜동	0.262	
	420	종로구	무악동	0.252	
	421	동대문구	회기동	0.251	
	422	송파구	잠실7동	0.185	
	423	강남구	개포1동	0.150	
	424	성북구	안암동	0.124	

(2) 사회활동 고립지수

지표별 가중치를 활용하여 사회활동 측면의 사회적 고립지수를 도출한 결과는 [그림 3-2]와 같다. 주간 상주지 변경, 평일/휴일 이동 횟수, 지하철 이동일수, 근무시간 변수로 구성된 사회활동 측면에서 사회적 고립을 보면, 주로 강북의 도심 지역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고립지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성북구, 종로구, 동대문구, 중구를 중심으로 나타났는데(표 3-9), 이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보다 근무, 통학, 이동 등 사회적 활동의 빈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용산구,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 송파구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사회활동 고립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북구, 종로구, 동대문구, 중구 등에 거주하는 청년들에 비해 용산구,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 송파구에 거

주하는 청년들이 더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해당 고립지수 도출을 통해 발견된 흥미로운 점은 사회활동 측면의 사회적 고립 수준이 높은 지역들이 대체로 한강 이북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상당히 군집화된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공간적인 군집 패턴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해당 지역들의 인프라, 도시환경 등이 청년의 사회활동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으며, 도시환경이 유사한 지역은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으로까지 사회적 고립이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지역적 관점에서 사회활동 측면의 사회적 고립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림 3-2] 사회활동 측면의 사회적 고립지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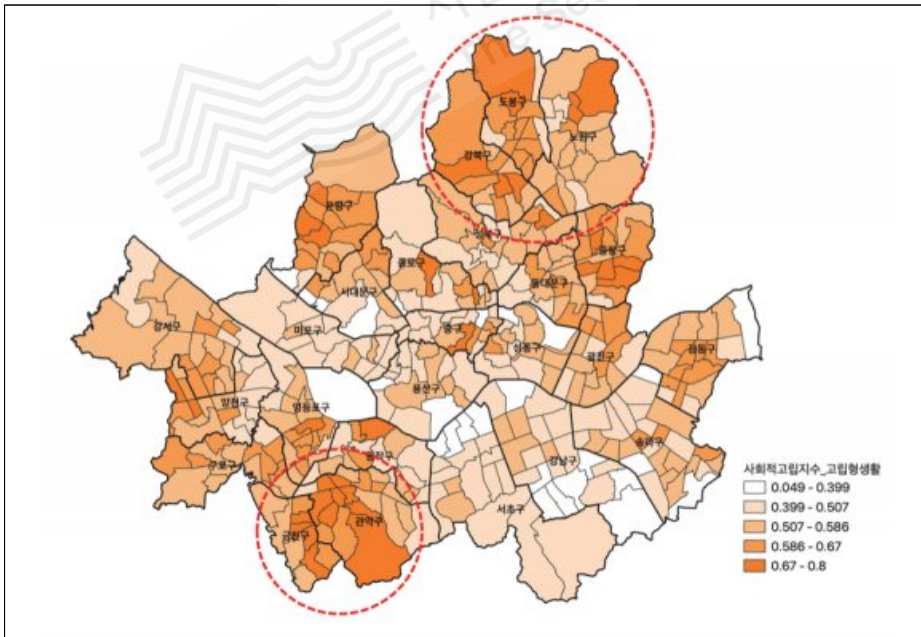
[표 3-9] 사회활동 고립지수

요인	순위	구	행정동	지수값	
사회활동 고립지수	1	성북구	안암동	0.864	
	2	종로구	혜화동	0.847	
	3	동대문구	회기동	0.839	
	4	종로구	이화동	0.824	
	5	종로구	삼청동	0.821	
	6	서대문구	신촌동	0.765	
	7	성동구	사근동	0.743	
	8	중구	장충동	0.737	
	9	종로구	종로1·2·3·4가동	0.730	
	10	중구	필동	0.728	
	...				
	415	성동구	용답동	0.400	
	416	성동구	옥수동	0.400	
	417	금천구	시흥3동	0.397	
	418	구로구	수궁동	0.389	
	419	강남구	세곡동	0.368	
	420	용산구	이촌2동	0.362	
	421	강남구	수서동	0.352	
	422	서초구	반포본동	0.328	
	423	용산구	서빙고동	0.316	
	424	강동구	둔촌1동	0.241	

(3) 고립형 생활 고립지수

지표별 가중치를 활용하여 고립형 생활 측면의 사회적 고립지수를 도출한 결과는 [그림 3-3]과 같다. 고립형 생활 측면에서 사회적 고립은 도봉구, 관악구, 금천구 등을 중심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표 3-10), 이는 물리적으로 이동성이 낮고, 실내 활동 위주의 생활 패턴을 보이는 청년들이 해당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상대적으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등에서 낮은 분포를 보였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는 청년들은 실내에 체류하는 시간이 적고, 오프라인상에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고립형 생활 고립지수를 구성하는 변수가 웨이브, 티빙 등 ott 서비스와 같은 동영상 서비스 사용일 수, 게임 이용시간, 평일/휴일 집 체류시간이기 때문에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청년들의 스마트폰, 디지털 기기의 중독 현상을 반영하고 물리적인 고립 및 은둔 현상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지수는 청년들이 실외에서 문화 여가 시설을 즐기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자아 실현을 하고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고안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3] 고립형 생활 측면의 사회적 고립지수 분포

[표 3-10] 고립형 생활 고립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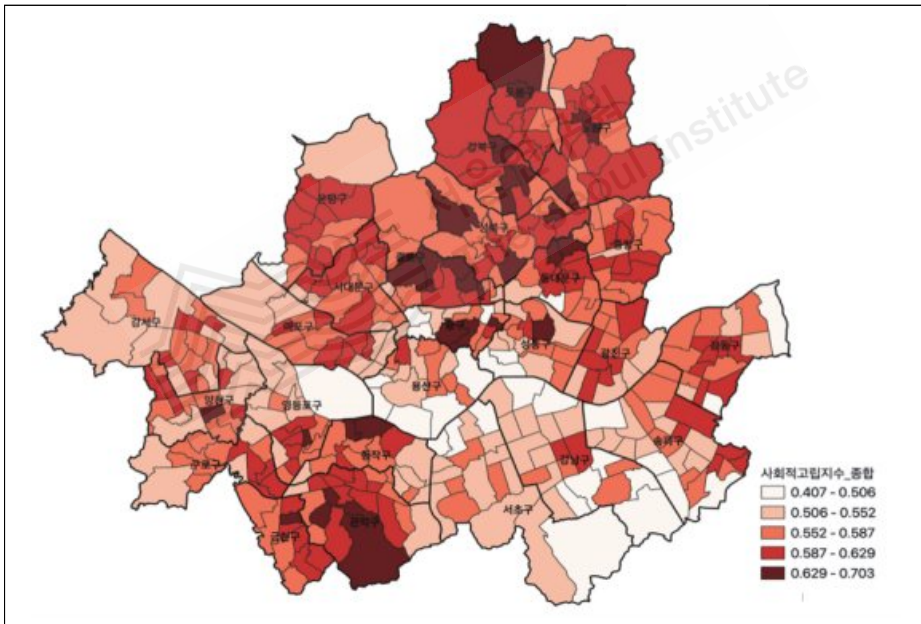
요인	순위	구	행정동	지수값	
고립형 생활 고립지수	1	도봉구	도봉1동	0.800	
	2	관악구	난곡동	0.781	
	3	금천구	독산4동	0.774	
	4	도봉구	방학2동	0.771	
	5	종로구	창신2동	0.764	
	6	종로구	삼청동	0.764	
	7	영등포구	영등포본동	0.746	
	8	관악구	대학동	0.744	
	9	관악구	서림동	0.739	
	10	동작구	노량진1동	0.737	
			...		
	415	서대문구	남가좌1동	0.335	
	416	서대문구	신촌동	0.332	
	417	서초구	잠원동	0.327	
	418	강남구	일원2동	0.314	
	419	송파구	위례동	0.308	
	420	서초구	반포2동	0.307	
	421	송파구	가락1동	0.307	
	422	중구	신당동	0.288	
	423	강남구	개포2동	0.280	
	424	서초구	반포본동	0.049	

[표 3-11] 사회적 관계 고립지수

요인	순위	구	행정동	지수값
사회적 관계 고립지수	1	노원구	중계1동	0.872
	2	성동구	사근동	0.856
	3	영등포구	신길4동	0.855
	4	양천구	신정2동	0.855
	5	성북구	안암동	0.855
	6	종로구	혜화동	0.847
	7	강남구	일원본동	0.845
	8	강남구	대치2동	0.830
	9	송파구	잠실7동	0.824
	10	강남구	대치1동	0.817
			...	
	415	서초구	잠원동	0.455
	416	중구	을지로동	0.446
	417	중구	신당동	0.420
	418	강남구	역삼2동	0.397
	419	중구	소공동	0.388
	420	강남구	삼성2동	0.364
	421	강남구	청담동	0.359
	422	강남구	논현2동	0.298
	423	강남구	역삼1동	0.210
	424	강남구	논현1동	0.157

(5) 종합 고립지수

18개의 모든 요인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사회적 고립지수를 도출한 결과는 [그림 3-5]와 같다. 종합 고립지수를 기준으로 중구 장충동과 관악구 대학동, 종로구 혜화동, 동대문구 회기동, 영등포구 신길4동, 성북구 안암동 등의 지역에서 고립지수가 높게 도출되었다(표 3-12). 이는 경제적인 불안정, 사회활동, 고립형 생활, 사회적 관계 측면에서 모두 고립의 정도가 높은 지역을 의미하기 때문에 종합 고립지수가 높게 나타난 지역의 청년 고립 수준은 다른 개별적인 지수들보다도 훨씬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지역들은 청년 고립 문제 해결에 있어 선제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해야 함을 시사한다. 반면 종합 고립지수가 낮은 지역은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강남구로 나타났다. 이 지역들은 청년 고립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기 때문에 청년 고립이 심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림 3-5] 종합 사회적 고립지수 분포

[표 3-12] 종합 고립지수

요인	순위	구	행정동	지수값	
종합 고립지수	1	중구	장충동	0.703	
	2	관악구	대학동	0.699	
	3	종로구	혜화동	0.692	
	4	성동구	사근동	0.688	
	5	종로구	삼청동	0.687	
	6	종로구	이화동	0.684	
	7	동대문구	회기동	0.682	
	8	영등포구	신길4동	0.678	
	9	성북구	안암동	0.676	
	10	종로구	창신2동	0.670	
	...				
	415	강남구	압구정동	0.477	
	416	영등포구	여의동	0.476	
	417	서초구	반포2동	0.468	
	418	용산구	서빙고동	0.453	
	419	중구	신당동	0.453	
	420	서초구	잠원동	0.451	
	421	송파구	가락1동	0.448	
	422	강동구	둔촌1동	0.446	
	423	서초구	반포본동	0.419	
	424	강남구	세곡동	0.407	

3_서울시 청년의 사회적 고립지수 도출 결과 요약 및 정리

사회적 고립 유형을 경제적 불안정성, 사회활동, 고립형 생활, 사회적 관계로 구분하여 고립지수를 산출하여 본 결과, 사회적 고립 유형별 지수가 지역별로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경제적 불안정성 측면의 사회적 고립은 주로 논현 및 역삼, 이태원 등 대규모 상권이 발달한 지역을 중심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활동 측면의 사회적 고립은 강남보다 강북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고립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지수는 한강 이북의 강북지역들을 중심으로 공간적 군집 패턴이

발견되었다. 고립형 생활 측면의 사회적 고립은 물리적으로 이동성이 낮고 실내 활동 위주의 생활 패턴을 가지는 청년들이 거주하는 행정동을 규명했다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이들은 주로 관악구, 도봉구, 노원구 등에 거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해당 지역들은 1인가구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이어서 고립이 심화될 경우 우울증 심화 또는 자살 등 사회적 문제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 깊게 관리하고 고립 완화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관계 측면의 사회적 고립은 다른 지표들에 비해 강남구에서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으며, 이외의 지역들은 대부분 비슷한 고립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사회적 고립지수가 높은 지역들(장충동, 대학동, 혜화동 등)은 주로 대학가 주변 지역인 경우가 많으며, 모든 사회적 고립 유형에서 고립지수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므로 지역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 해결을 위한 선제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지역임을 규명하였다.

이렇듯 각 영역별 사회적 고립지수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사회적 고립을 유발하는 지역별 특성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로 차별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3-13] 주요 결과 요약

구분	사회적 고립 유형	분석 결과
사회적 고립 요인	경제적 불안정성	논현 및 역삼, 이태원 등 상권이 발달한 지역을 중심으로 청년의 경제적 불안정성 측면의 사회적 고립 지수가 높음
	사회활동	강남보다 강북지역 거주하는 청년들의 사회 활동의 고립 수준이 높으며, 공간적 패턴이 군집을 이루고 있음
	고립형 생활	물리적으로 이동성이 낮고 실내 활동 위주의 생활패턴을 가지는 청년들은 주로 관악구, 도봉구, 노원구 등에서 거주함
	사회적 관계	사회적 관계 측면에서의 사회적 고립은 강남구에서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도출
	종합	장충동, 대학동, 혜화동 등 대학가 주변 지역에서 사회적 고립이 높은 것으로 도출

04. 서울시 청년의 사회적 고립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 생활환경 요인 도출

1_서울시 청년의 사회적 고립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 생활환경 요인 도출

본 장에서는 사회적 고립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 생활환경의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의 구체적인 범위 및 분석 방법을 제시하며, 모형에 포함되는 종속 및 설명변수를 구성하도록 한다.

1) 연구의 범위 및 분석 모형

(1) 연구의 범위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424개 행정동을 기준으로 하며,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청년의 사회적 고립지수를 도출한 기준연도인 2023년 4월을 기준으로 하였다. 분석 모형에 투입되는 설명변수는 제공되는 자료의 가장 최근 시점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시점의 사회 고립 수준을 반영하여 서울시 청년의 고립 실태와 영향 요인을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다. 또한 분석의 공간적 단위를 행정동으로 설정함으로써 미시적인 수준에서 사회적 고립을 확인하고 그 원인을 식별할 수 있다. 이러한 미시적인 접근은 기존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했던 고립 관련 연구와는 차별화되어 세부적인 지역 맞춤형 전략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2) 분석 모형 및 변수 구성

① 분석모형

행정동 수준에서 서울시 도시 생활환경 요인에 따른 청년의 고립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모형(multiple regression analysis model)을 적용하고, 통계패키지 STATA 17.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 적용되는 다중회귀분석 모형은 <식 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Y = \beta_0 + \beta_1 x_1 + \beta_2 x_2 + \dots + \beta_n x_n + \epsilon \quad \langle \text{식 2} \rangle$$

여기서 Y 는 사회적 고립지수를, x 는 도시 생활환경 요인을 의미한다. β 는 회귀계수(coefficient)로 설명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며, ϵ 는 오차항으로 구축한 모형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잔차이다.

② 변수 구성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2023년 ‘서울 시민생활 데이터’ 자료에 기초하여 앞서 구축된 청년의 사회적 고립지수이며, 사회적 고립지수는 다시 경제적 불안정성, 사회활동, 고립형 생활, 사회적 관계, 종합 측면으로 구분되어 각각의 지수를 기반으로 별도의 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표 4-1).

모형의 설명변수는 크게 주거 요인, 경제적 요인,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주거 요인에는 주택유형, 30년 이상 노후주택 수, 임대주택 수(SH)를 포함하였다. 물리적인 주거 환경과 임대주택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의 감소는 청년층에게 주거 안정성을 증대하여 생활 방식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변수들을 모형에 투입하였다.

경제적 요인에는 사업체 수, 사업체 창업률, 서비스업 종사자 수, 행정동별 상권발달 수준(매출지수, 인프라지수, 가맹점지수, 인구지수, 금융지수), 행정동별 소득 수준(급여 소득자수, 자영업자 수, 기타 소득자 수, 평균소득)을 포함한다. 지역 내 사업체 수, 사업체 창업률, 행정동별 소득 수준의 경우 청년에게 가장 중요한 고용 기회와 직결되어 있다. 특히 청년들의 경우 제조업 일자리보다는 3차 산업, 즉 서비스업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높다. 또한 서울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 서비스업 성장에 있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으로 청년의 일자리 선호와 서울시의 산업 구조를 반영하기 위해

해당 변수들을 설명변수로 투입하였다. 행정동별 상권발달 수준¹⁾ 변수는 서울시 행정동 단위에서 상권 발달 정도를 평가하여 지수화한 변수로써, 5가지 하위 지수(매출지수, 가맹점지수, 인구지수, 인프라지수, 금융지수)로 세분화 되어 있다. 이 지수들을 통해 지역 내 상권의 활성화 정도를 대변하고자 한다. 또한 행정동별 소득 수준²⁾의 경우에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제적 상황을 내포하고 있다. 해당 변수는 지역의 평균 소득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 소득자수, 기타소득자수 등 하위 지표로 세분화 되어 급여를 통한 정기적인 소득 수준과 더불어 일시적 소득 수준을 모두 반영할 수 있다. 또한 20~39세에 해당하는 데이터만을 추출하여 단순히 지역 전체의 소득 수준이 아니라 지역 내 청년 소득 수준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환경적 요인에는 세대당 도시공원면적,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사업체 수, 커피전문점 및 학원수, 고학력자 비율, 1인가구수 변수가 포함된다. 도시공원면적,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사업체 수 변수는 지역의 문화, 여가 인프라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투입하였으며, 커피 전문점 및 학원수 변수는 상권 발달의 정도로 일부 대리할 수 있지만, 지역 내에서 사람들과 상호작용 할 수 있는 장소의 풍부함을 반영하기 위해 투입하였고, 학원 수 또한 청년들에게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식 및 기술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는 곧 취업까지도 연결되는 변수이기 때문에 상호작용 및 교육 서비스의 기회를 반영하기 위해 투입하였다. 이외에도 지역 내 고학력자 비율 변수를 투입하여 지역의 학력 수준을 반영하고, 지역 내 혼자 거주하는 청년들의 규모를 모형에 반영하기 위해 1인가구수 변수를 포함하였다.

1) 해당 변수는 서울시 상권발달 개별지수 데이터를 활용하여 행정동별로 매출지수, 가맹점지수, 인구지수, 인프라지수, 금융지수 정보를 제공한다. 각 지수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서울시 상권발달 개별지수 - 서울시 빅데이터 캠퍼스 자료안내서).

- ① 매출지수: 지역의 총매출금액과 가맹점별 매출금액을 통해 상권발달 정도를 평가
- ② 가맹점지수: 상권 내 건물에 운영 중인 가맹점의 규모(가맹점수/프랜차이즈수) 및 특성
- ③ 인구지수: 기준 면적당 인구의 밀집 정도
- ④ 인프라지수: 대중교통 이용객수, 주요집객시설 여부,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 여부 등 상권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규모를 평가
- ⑤ 금융지수: 소득, 소비 수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에 상주하는 소비자의 잠재적 구매력을 반영

2) 해당 변수를 구축하는 데 사용한 서울시민 KCB 생활금융 통계는 거주지 기반으로 경제 활동 중인 시민의 금융 정보를 토대로 소득, 부채 등을 추정하여 제공한다(서울시 빅데이터 캠퍼스 자료안내서).

[표 4-1] 종속 및 설명변수

요인별	변수별(행정동)	출처	연도		
종속변수	경제적 불안정성 고립지수	서울 시민생활데이터	2023		
	사회활동 고립지수				
	고립형 생활 고립지수				
	사회적 관계 고립지수				
	종합 고립지수				
설명변수	주거 요인	주택 유형(단독, 다세대, 아파트 등)	주택총조사	2020	
		30년 이상 노후주택 수	통계청	2022	
		SH 임대주택 세대수	정보요청	2023	
	경제적 요인	사업체 수	서울시 사업체조사	2021	
			사업체 창업률	서울시 사업체조사	2021
			서비스업 종사자 수	전국사업체조사	2021
		행정동별 상권발달 수준	매출지수	서울시 빅데이터 캠퍼스 (서울시 상권발달 개별지수)	2019
			인프라지수		
			가맹점지수		
			인구지수		
		행정동별 소득 수준	금융지수	서울시 빅데이터 캠퍼스 (서울시민 KCB 생활금융통계)	2020- 2021
			급여소득자수(명)		
			자영업자수(명)		
	기타소득자수(명)				
	환경적 요인	평균소득(만 원)			
세대당 도시공원면적		산림빅데이터거래소	2020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사업체 수		전국사업체조사	2021		
커피전문점 사업체수		전국사업체조사	2021		
학원수(일반교과)		전국사업체조사	2021		
고학력자비율		인구총조사	2020		
In1인가구수	서울특별시 기본통계	2020			

2) 도시 생활환경 요인 현황 분석

(1) 기초 통계

모형에 포함되는 종속 및 설명 변수의 기초통계량은 [표 4-2]와 같다.

[표 4-2] 종속변수 및 설명변수의 기초 통계

요인별	변수별(행정동)	Obs	Mean	Min	Max	
고립지수	경제적 불안정성	424	0.48	0.12	0.98	
	사회활동	424	0.54	0.24	0.86	
	고립형 생활	424	0.54	0.05	0.80	
	사회적 관계	424	0.67	0.16	0.87	
	종합	424	0.57	0.41	0.70	
주거 요인	주택형태(아파트)	421	4,210.62	21.00	16,634.00	
	30년 이상 노후주택 수	424	1,326.87	0.00	12,483.00	
	SH 임대주택 세대수	424	438.32	0.00	12,798.00	
경제적 요인	사업체 수	424	2,802.10	36.00	25,043.00	
	사업체 창업률	424	14.57	4.28	27.53	
	행정동별 상권발달 수준	매출지수	424	18.50	5.83	56.47
		인프라지수	424	17.95	0.00	87.02
		가맹점지수	424	21.79	5.06	52.18
		인구지수	424	21.61	3.44	57.11
		금융지수	424	51.36	34.05	85.27
	행정동별 소득 수준	급여소득자수(명)	424	512.02	0.00	1,668.74
		자영업자수(명)	424	15.94	0.00	187.56
		기타소득자수(명)	424	205.47	0.00	932.92
		평균소득(만 원)	424	296.12	0.00	395.85
	서비스업 종사자 수	424	11,903.10	274.00	183,297.00	
	환경적 요인	세대당 도시공원면적	424	24.44	0.00	956.51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사업체 수		424	67.74	1.00	454.00	
커피전문점 사업체수		423	45.39	2.00	455.00	
학원수(일반교과)		419	35.86	1.00	595.00	
고학력자비율		424	41.02	14.77	72.79	
ln1인가구수		424	7.89	1.79	9.51	

2_서울시 청년의 사회적 고립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 생활환경 요인 분석

본 장에서는 3장에서 도출한 사회적 고립지수를 바탕으로 도시 생활환경의 다양한 요인이 청년의 사회적 고립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년의 사회적 고립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지역의 여건을 토대로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모형의 예측력 향상과 간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를 기반으로 모형을 구축하였다.

1) 경제적 불안정성

경제적 불안정성 고립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 생활환경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4-3]과 같다. 경제적 불안정성 측면에서 청년의 사회적 고립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거 요인에서는 임대주택 수가 음(-)의 방향으로 유의하게 도출되었다. 경제적 요인에서는 평균소득, 급여소득자수 변수가 음의 방향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자영업자수, 매출지수, 인프라지수는 양(+)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적 요인에서는 1인가구수 변수가 양의 방향으로, 고학력자 비율이 음의 방향으로 사회적 고립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불안정성 측면에서 청년의 사회적 고립에는 특히 경제적 요인 차원의 변수들이 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의 평균소득 수준과 급여소득자수가 많을수록 사회적 고립 수준은 낮아졌는데, 이는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평균소득이 높고 급여소득자 수가 많을수록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사회활동이 빈번하고, 경제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상호작용 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사회적 고립이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자영업자수, 매출지수, 인프라지수와 같이 상권발달과 관련된 변수는 청년의 사회적 고립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지역의 상권 활성화에 따른 생활비나 주거비 부담이 청년의 경제적 불안에 따른 사회적 고립을 더욱 증가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지역 상권 발달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현상들은 지역의 주택가격을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생필품, 식비와 같은 생활 비용이

상승하게 되어 청년들을 경제적으로 불안하게 만들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영향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을 시사한다.

반면, 임대주택 규모, 1인가구 규모, 고학력자 비율 변수가 청년의 사회적 고립에 음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이 청년의 주거 안정과 직결되고, 주거 안정성은 다시 사회적 고립 수준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역의 1인가구 규모 또한 경제적 측면의 고립을 증가시켰는데 이는 대부분의 1인가구가 청년이나 사회 초년생으로 구성되어 있어 중장년층에 비해 소득이 낮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배우자나 가족 구성원의 소득이 아닌 당사자의 소득만으로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월세 등과 같은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에 따른 경제적 불안감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지역의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측면의 사회적 고립 수준은 낮아졌는데, 학력 수준이 높으면 더 많은 소득과 고용 기회를 가질 가능성이 높고, 이는 청년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생활이나 사회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일 것이다.

[표 4-3] 경제적 불안정성 모형

요인별	변수별(행정동)	Coef.	Std.Err	p-value
주거 요인	임대주택 수	-0.0000104***	0.0000039	0.008
경제적 요인	평균소득	-0.0011054***	0.0001635	0.000
	급여소득자수	-0.0000717***	0.0000261	0.006
	자영업자수	0.0022777***	0.0003014	0.000
	매출지수	0.0011637*	0.0006622	0.080
	인프라지수	0.0017066***	0.0004295	0.000
환경적 요인	1인가구 수	0.0205496**	0.0084975	0.016
	고학력자 비율	-0.0033786***	0.0005251	0.000
N	424			
F	45.95***			
Adj-R2	0.460			

주 1: ***p<0.01, **p<0.05, *p<0.1

2) 사회활동

사회활동 고립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 생활환경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4-4]와 같다. 사회활동 측면에서 청년의 사회적 고립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거요인에서는 아파트가 양(+의 방향으로, 임대주택이 음(-)의 방향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요인에서는 급여소득자수가 음의 방향으로, 가맹점 지수가 양의 방향으로 도출되었으며, 환경적 요인에서는 커피전문점 사업체규모, 학원규모, 1인가구수 변수가 양의 방향으로 청년의 사회적 고립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규모, 급여소득자 규모는 사회활동 고립지수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었는데, 이는 주거불안 요인 완화와 안정적인 소득이 청년들의 사회활동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반면, 지역의 아파트 규모, 1인가구수 변수는 사회활동 고립 수준을 증가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의 주거 특성상 커뮤니티 약화에 따른 영향으로 볼 수 있으며, 가맹점지수, 커피전문점 및 학원수 변수의 경우는 젊은 상권이 발달하는 지역의 특성상 주거비 및 생활비 부담 증가에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4] 사회활동 모형

요인별	변수별(행정동)	Coef.	Std.Err	p-value
주거 요인	아파트	0.0000032**	0.0000014	0.019
	임대주택 수	-0.0000083**	0.0000034	0.016
경제적 요인	급여소득자수	-0.0001521***	0.0000221	0.000
	가맹점지수	0.0018703***	0.0005351	0.001
환경적 요인	커피전문점사업체수	0.0004343***	0.0000803	0.000
	학원수	0.0002328***	0.0000715	0.001
	1인가구수	0.0441911***	0.0082187	0.000
N	416			
F	22.30***			
Adj-R2	0.264			

주 1: ***p<0.01, **p<0.05, *p<0.1

3) 고립형 생활

고립형 생활 고립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 생활환경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4-5]와 같다. 고립형 생활 측면에서 청년의 사회적 고립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거 요인에서는 임대주택 규모가 음(-)의 방향으로, 경제적 요인에서는 기타 소득자수 변수가 양의 방향으로, 평균소득, 사업체수 변수는 음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적 요인에서는 1인가구수 변수가 양(+)의 방향으로, 고학력자 비율 변수는 음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임대주택 규모, 평균소득 수준, 지역의 사업체수 및 학력 수준은 고립형 생활 측면에서의 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낮추는 요인에 해당한다. 이러한 변수들은 안정적인 주거, 소득 및 지역의 일자리 기회를 대변하는 것으로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고립형 생활에 따른 사회적 고립 수준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기타 소득자수, 1인가구수는 고립형 생활에 따른 사회적 고립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기타소득은 일시적, 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므로 안정적이지 않은 소득에 따른 불안감이 고립형 생활로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1인가구에서 더욱 가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고립형 생활의 경우 문화시설, 공원, 생활인프라와 같은 도시 환경적 요인은 대체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모형에서는 제외하였는데, 이는 다른 고립 유형에 비해 지역의 환경적 요인보다는 개인의 경제적 상황이 청년들의 고립형 생활에 더욱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표 4-5] 고립형 생활 모형

요인별	변수별(행정동)	Coef.	Std.Err	p-value
주거 요인	임대주택 수	-0.0000144***	0.0000035	0.000
경제적 요인	평균소득	-0.0004065**	0.0001592	0.011
	기타 소득자수	0.0001027*	0.0000553	0.064
	사업체수	-0.0000037**	0.0000015	0.012
환경적 요인	1인가구수	0.0214926***	0.0081854	0.009
	고학력자비율	-0.0032651***	0.0004585	0.000
N	424			
F	53.05***			
Adj-R2	0.425			

주 1: ***p<0.01, **p<0.05, *p<0.1

4) 사회적 관계

사회적 관계 고립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 생활환경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4-6]과 같다. 사회적 관계 측면에서 청년의 사회적 고립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거 요인에서는 아파트가 양(+의 방향으로, 경제적 요인에서는 급여소득자수, 인프라지수 변수가 음(-)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적 요인에서는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사업체수 변수는 음의 방향으로 사회적 관계 측면의 고립 수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주거 요인에서 지역의 아파트의 규모는 사회적 관계 측면의 사회적 고립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분절된 주거공간은 이웃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급여소득자수, 인프라지수가 증가할수록 사회적 관계 측면의 고립 수준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지표를 나타내는 변수들이 청년의 사회적 관계 고립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다른 고립 지수 유형과 유사하게 지역의 경제적 수준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늘리고 사회적 고립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임대주택이나 1인가구 규모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던 다른 지수와는 다르게 사회적 관계 측면의 고립 수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해당 분석에서 주목할 점은 사회적 관계 측면에서의 사회적 고립 수준은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사업체수 변수와 같이 문화 및 여가 관련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들에게 문화·여가 기회를 증진하고 그들이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다양한 관련 정책들을 제공하는 것이 청년의 사회적 관계 측면의 고립 수준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를 통해 문화·여가의 기회는 다른 고립의 측면들보다 특히 사회적 관계 측면의 고립 수준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 4-6] 사회적 관계 모형

요인별	변수별(행정동)	Coef.	Std.Err	p-value
주거 요인	아파트	0.0000047***	0.0000016	0.003
	임대주택 수	-0.0000049	0.0000041	0.230
경제적 요인	급여소득자수	-0.0001350***	0.0000267	0.000
	인프라지수	-0.0031056***	0.0003595	0.000
환경적 요인	1인가구수	0.0128582	0.0097492	0.188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사업체 수	-0.0002252**	0.0001023	0.028
N	421			
F	40.05***			
Adj-R2	0.358			

주 1: ***p<0.01, **p<0.05, *p<0.1

5) 종합

종합 고립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 생활환경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4-7]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각 지표를 통합하여 서울시 청년들의 종합적인 고립지수를 구축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 생활환경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거 요인에서는 임대주택의 공급이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자체 차원에서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제공하는 것은 청년 세대들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 최근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청년들의 삶의 질과 사회참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증명하였다.

경제적 요인에서는 평균소득, 급여소득자수, 인프라지수 변수가 음(-)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사회가 충분한 소득이 보장되고 경제 활동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청년들이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경제적 안정성의 여부가 사회적 관계를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매출지수는 양(+)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역의 총매출 금액과 가맹점의 매출 금액을 통하여 상권발달의 정도를 평가하는 지수로서, 지역의 상권의 활성화 정도를 나타낸다. 매출 지수가 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증가시키는 이유는 상권이 활성화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지역의 물가와 거주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청년의 경제적 불안정성이 높아져 사회적 고립 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환경적 요인에서는 1인가구수 변수가 양의 방향으로 서울시 청년의 종합 고립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혼자 사는 청년이나 가구가 많을수록 지역의 청년의 고립 수준은 점차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1인가구를 위해 사회적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들이 반드시 고안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표 4-7] 종합 모형

요인별	변수별(행정동)	Coef.	Std.Err	p-value
주거 요인	임대주택 수	-0.0000049***	0.0000017	0.005
경제적 요인	평균소득	-0.0004050***	0.0000597	0.000
	급여소득자수	-0.0000769***	0.0000103	0.000
	매출지수	0.0004987*	0.0002679	0.063
	인프라지수	-0.0007292***	0.0001796	0.000
환경적 요인	1인가구수	0.0309656***	0.0037271	0.000
N	424			
F	37.31***			
Adj-R2	0.340			

주 1: ***p<0.01, **p<0.05, *p<0.1

05. 서울시 사회적 고립 청년의 심층 인터뷰 결과

1_사회적 고립 심층 인터뷰 개요

본 장에서는 사회적 고립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데이터 분석에서 드러나기 어려운 개인 수준의 영향 요인 및 심리적 요인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고립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들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심층 인터뷰 진행의 목적 및 의의

본 연구는 앞서 서울시 청년의 사회적 고립지수 도출과 사회적 고립지수에 미치는 도시 생활환경 영향 요인 분석을 통해 유형별 사회적 고립지수가 높은 지역 및 영향 요인을 비교 분석하였다. 다만, 빅데이터의 이용 및 행정동 단위의 미시적 분석을 통해 데이터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포괄적이면서도 세밀한 분석을 도출하고자 하였음에도, 물리적, 사회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사회적 고립의 특성상 데이터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개인적 요인을 반영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선 데이터 분석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사회적 고립의 개인 수준에서의 영향 요인과 심리적, 정서적 요인 등도 함께 파악하고자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2) 인터뷰 대상자 선정 기준

연구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심층 인터뷰 대상자는 앞선 분석 결과를 토대로 [표 5-1]과 같이 사회적 고립지수가 높은 관심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우선순위로 고려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청년의 사회적 고립지수를 도출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 생활환경 요인

을 밝히는 데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도출한 사회적 고립지수가 높게 나타난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데이터 분석에서 밝히기 어려웠던 개인적인 원인 요인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청년은 연구 목적과 정책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청년기본조례’ 기준 등을 참고하여 연구 대상인 청년을 보다 폭넓게 정의하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에 20~39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인 사회적 고립 상태가 높다고 인지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사회적 고립 정도는 개인이 인지하고 있는 정도에 따라서 같은 상황에서도 다르게 느낄 수 있고, 절대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사회적 고립 정도를 기준으로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인 사회적 고립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서 주관적인 사회적 고립 정도를 묻는 문항(‘현재 본인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혹은 최근 1년 내에 사회적 고립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을 활용하였다. 문항은 5점 척도(매우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5점))로 구성하였으며, 주관적 사회적 고립 정도가 4점 이상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다.

[표 5-1] 사회적 고립 청년 인터뷰 대상지 선정

순위	분류_구	사회적 고립 청년 인터뷰 대상지(행정동)	상위 42개 포함 개수
1	관악구	대학동/서림동/신원동/서원동/신림동/신사동/난곡동/보라매동	25
2	종로구	혜화동/삼청동/이화동/창신1동/창신2동/청운효자동/가회동	24
3	노원구	상계2동/상계3·4동/상계5동/중계1동/하계1동/월계1동/공릉2동	18
4	강남구	논현1동/논현2동/역삼1동/역삼2동/대치4동	16
5	강북구	송천동/미아동/수유1동/수유2동/수유3동/번1동/번2동	16
6	성북구	안암동/장위2동/정릉3동/돈암1동/월골1동/월곡2동/삼선동	14
7	도봉구	방학2동/방학3동/도봉1동/쌍문2동/쌍문3동/쌍문4동	11
8	동대문구	회기동/이문1동/휘경2동	9
9	중랑구	면목2동/면목본동/망우3동	9
10	양천구	신정1동/신정2동/신월3동/신월4동	8
11	중구	장충동/필동/명동/동화동	8

2_사회적 고립 심층 인터뷰 내용 및 주요 함의

1) 심층 인터뷰 개요

본 연구에서는 심층 인터뷰 진행을 위해 문항을 [표 5-2]와 같이 크게 내부적 차원과 외부적 차원으로 구성하였다. 내부적 차원은 개인의 생활 패턴 및 사회적 네트워크와 더불어서 데이터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심리적·정서적 상태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이 미치는 영향을 개인의 생활 및 심리적 차원에서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외부적 차원은 주거 지역의 환경 및 사회적 고립 관련 제도와 지원에 대한 문항이며, 주로 주거 지역의 환경이 사회적 고립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표 5-2] 심층 인터뷰 질문 구성

구분	주요 내용
인적사항	성별/거주지(행정동)/결혼 여부/1인가구 여부/거주기간/점유 형태
사회적 고립 정도	주관적 사회적 고립 정도(5점 척도)
내부적 차원	사회적 고립 생활 정도 및 상태(생활패턴, 외출, 소통, 연락, 경제활동 등)
	SNS/OTT/유튜브 사용(빈도, 목적, 내용)
	개인의 노력 및 의지 정도(사회적 고립 탈출 의지, 시도, 인지 등)
외부적 차원	주변 생활 환경(거주지 인식, 만족도, 개선점, 사회적 고립 영향 정도)
	지원 제도 및 정책(필요 정책 및 지원 등)

2) 인터뷰 대상자의 구성

인터뷰 대상자의 선정 기준에 따라 수집된 인터뷰 대상자는 남성 2명, 여성 1명으로 총 3명으로 구성되었고 연령은 만 29세(1994년생)부터 만 31세(1992년생)이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대상자부터, 자취경험이 있거나, 기숙사에 거주 중인 경우까지 청년들의 다양한 주거 환경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주거비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자력으로 부담하거나 부모님께 의지하거나 일부를 부모로부터 보조받는 경우가 있었다. 고용 형태는 직업이 있는 경우는 정규직이었으며, 다른 2명은 대학원에 재학 중이기 때문에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이다. 인터뷰 대상자의

주요 정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5-3] 인터뷰 대상자 특성

대상자 ID	항목	내용
A	성별	남
	연령(만)	31세(1992년생)
	직업	직장인(정규직)
	거주지	강남구 청남동
	동거인	부모님/동생
	거주기간	4년
	주택 유형(점유 형태)	다세대주택(전세)
	주거 특징	부모님과 주중에만 함께 거주
B	성별	남
	연령(만)	29세(1994년생)
	직업	대학원생(석사과정)
	거주지	관악구 낙성대
	동거인	-
	거주기간	2년
	주택 유형(점유 형태)	원룸(월세)
	주거 특징	최근 본가로 이사(아파트(전세))
C	성별	여
	연령(만)	30세(1993년생)
	직업	대학원생(박사과정)
	거주지	관악구
	동거인	-
	거주기간	4년
	주택 유형(점유 형태)	기숙사(1인실)
	주거 특징	기숙사 거주

3) 심층 인터뷰 결과

(1) 사회적 고립의 내부적 차원: 사회적 고립 생활 정도 및 상태

① 생활 패턴 및 관계

사회적으로 고립된 생활이나 정도 및 상태에 대한 부분은 개인적인 상황 등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았으며, 사회적 고립 정도가 심할수록 사회적 연결망이 약하고 내외적으로 단절된 생활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주중엔 회사로 출근하고 퇴근 후엔 일주일에 한두 번 운동을 가기도 하지만 보통 퇴근 후 집에 가면 잘 움직이지 않아요. 주말엔 가끔씩 스터디 모임에도 참석 하긴 하지만 약속이 없으면 주로 집에서 보내는 거 같아요.” [인터뷰 대상자 A]

“혼자 살 때는 할 일이 없고 심심하니까 주로 스마트폰을 보거나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 생활도 불규칙적으로 하게 되고... 평소에는 주로 학교 가거나 아니면 혼자 카페에서 공부하고 그랬던 거 같아요.” [인터뷰 대상자 B]

“작년에 사회적 고립감이 가장 심했을 때는 생활이라는 게 없었고, 멍하니 침대에 누워있기만 했어요. 학점교류 수업을 들었는데 수업이 있는 금요일 딱 하루만 나가고, 나머지는 침대에만 누워있었어요. 원래도 생활패턴이 단순하긴 했지만 주로 기숙사-도서관만 왔다 갔다 하면서, 점차 밖으로 나가는 빈도가 줄어들었던 거 같아요.” [인터뷰 대상자 C]

가족 및 친구와의 관계는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도 1인가구일수록 사회적 고립지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유사하게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마음의 안정과 더불어 고립감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모님이 주중엔 집에 계시고, 주말에는 고향인 대전으로 내려가시는데 부모님께서 집에 계시실 때는 함께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니깐 확실히 우울함과 외로움을 덜 느끼는 거 같아요. 가족들하고 말을 많이 하고 저녁도 함께 자주 먹는 편인데,

만약 독립하게 되어 혼자 살게 된다면 삶이 매우 안 좋게 바뀔 것 같고 우울감도 많이 느낄 것 같아요.”[인터뷰 대상자 A]

“최근 본가로 이사 가고 나서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서 확실히 몸도 마음도 안정되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인터뷰 대상자 B]

다만, 가족과의 관계나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 사회적 고립 완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존재했다. C의 경우 사회적 고립감이 심했을 때 오히려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담으로 다가왔고 부모님 집에서조차 고립감을 느꼈는데, 이는 부모님과 어떠한 관계를 형성했는지와 더불어 개인적인 성향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즉,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거나 극복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주관적인 성향이 크게 반영되는 데 따른 차이로 볼 수 있다.

“작년에 사회적 고립감이 심했을 때는 가끔 두 달에 한 번 정도 주말에 부모님이 계시는 본가(인천)에 가고는 했어요. 내가 힘든 것을 부모님은 잘 몰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부모님 집에 잘 안 가려고 했던 거 같아요. 오히려 가족들과 있으면서 내가 느끼는 고립감이 더 커졌는데 부모님께 죄책감 같은 게 느껴졌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한편으로 부모님은 나를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도 있고, 괜찮은 척을 해야 하니 부정적인 감정과 괴리감이 커지니까 집안에도 불구하고 힘들었어요.”[인터뷰 대상자 C]

친구 관계의 경우 인터뷰 대상자 모두 사회적 고립감 완화 및 극복에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중·고등학교와 같이 성인으로서의 사회 진입기 이전 시기부터 오랫동안 관계를 형성한 관계가 사회적 고립 완화에도 도움이 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의 양이나 질의 수준이 낮으며, 사회적 지지의 결여 등으로 인해 야기(이민아, 2013)되는 사회적 고립의 특성상 사회적 고립 완화를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오래되거나 신뢰도가 높은 밀접한 친구 관계에서 정서적 안정감과 사회적 지지를 얻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주 연락하는 고등학교 때 친구 한두 명 정도 있는데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감사해요. 고등학교 친구들은 10년 이상 알고 지낸 사이라서 개인적인 얘기도 할 수 있고,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대학교나 회사 생활 등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는 도움을 청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지위를 가지고 만난 사람들이라 모든 걸 다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인터뷰 대상자 A]

“고등학교, 대학교, 동아리 사람들 포함하면 8명 정도 되는 친구들과 주로 연락하고 지내는데 고등학교 친구들이 그래도 제일 편한 사이 같아요. 가족을 제외한다면, 힘들 때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아요.”[인터뷰 대상자 B]

“중학교 친구(1명), 고등학교 친구(1명), 대학교 친구(3명)들이 내가 연락을 먼저 하지 않아도 항상 내게 연락을 계속해 주는 친구들이에요. 고립감이 너무 심했을 때는 내가 먼저 손을 내밀기 힘든 상태였는데, 이때 친구들이 억지로 나를 불러 내기도 하면서 나를 계속 붙잡아 줬어요. 친구들 덕분에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구나 싶었고 이렇게라도 기숙사 밖을 나가면 잠시 숨통이 트이곤 했어요.”[인터뷰 대상자 C]

② 경제적 불안감과 사회적 고립

경제적 요인은 사회적 고립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요인으로, 청년기에 겪는 경제적 불안과 취업난은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에 해당한다. 실제로 본 연구의 인터뷰 대상자의 경우 특히 주거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A의 경우 직장인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독립을 함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었고 이로 인해 독립에 대해 걱정과 불안감을 갖고 있었다.

“직장인이지만 경제적 불안감을 느껴요. 부모님이 은퇴하시고 나면 나중엔 독립을 해야 하는데 독립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소득에서 주거비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매우 우울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직 소득이 크지 않다 보니 주거비 마련에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독립에 대해 불안함과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인터뷰 대상자 A]

“혼자 살 때는 월세를 내야 하다 보니 주거비 부담이 있었어요. 최근에 부모님이 계신 본가로 들어갔는데,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면서 심적 부담감도 크게 줄어들었어요.”[인터뷰 대상자 B]

“작년에 한참 힘들었을 당시에는 수입이 없어서 모아뒀던 돈을 거의 다 썼어요. 부모님께서는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의지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아무래도 주거비 인 기숙사비가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기숙사비를 무조건 미리 다 모아두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 힘들더라고요.”[인터뷰 대상자 C]

이러한 경제적 부담감 및 불안감은 사회적 고립으로 연결되는데, 주로 경제적 부담감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의 연결성 및 네트워크 약화와 같은 외부적 고립과 더불어 경제적 불안정성에 따른 심리적 고립 및 우울감 증폭과 같은 내부적 고립감을 유발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B와 C의 경우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는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거나 카페 등을 방문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부담이 되어 사람들을 만나지 않거나, 외부활동을 하고 싶어도 못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경제적 불안함과 사회적 고립이 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고립되어 있는 것에 걱정과 불안이 더해지면 우울감도 증폭되거든요.”[인터뷰 대상자 A]

“경제적 불안감이 사회적 고립에 꽤나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외부 활동은 돈이 드니까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돈이 없으면 한 번 더 고민하게 되고..., 경제적 불안감이 클수록 외부 활동도 줄고, 사회적 고립감도 크게 느끼는 것 같아요.”[인터뷰 대상자 B]

“경제적 요인이 진짜 중요한 거 같아요. 내가 돈이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가만히 방에 있다 보면 어느 순간 벽이 나를 덮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날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딜 나가려면 돈이 필요하고 돈이 없으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힘든 순간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카페라도 나갈 수 있을 텐데.., 당시 저에게는 카페를 가는 것조차 부담이 되었어요.”[인터뷰 대상자 C]

이처럼 청년의 경우 생애주기 특성상 성인임에도 고정적인 수익이 없거나 고정적인 수익이 있더라도 금전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로 인한 경제적 불안감과 경제적 불안정성은 사회적 고립이 유발되거나 기존의 사회적 고립을 더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 사회적 고립의 내부적 차원: SNS/OTT/YouTube 사용

본 연구에서는 SNS 및 OTT 등의 사용이 활발한 청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 고립과 SNS, OTT, YouTube의 영향 관계 등을 살펴보았다. 사회적 고립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 연결망, 소속감 등은 물리적인 관계와 대면적인 만남으로도 형성될 수 있지만, SNS 등과 같은 소통을 통해서도 이뤄질 수 있다. 특히 청년의 경우 SNS를 활발히 이용하는 세대에 해당하므로 SNS의 이용에 따른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OTT, YouTube와 같은 영상 플랫폼이 활성화됨에 따라 주 소비층인 청년들과 사회적 고립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보려고 하였다.

인터뷰 결과 SNS, OTT, YouTube 서비스의 이용 정도는 개인의 취향 및 여가시간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주로 혼자 시간을 보낼 때 시간을 소비하기 위한 도구로 SNS, OTT, YouTube를 이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시간 소비는 시간을 생산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줌으로써 SNS, OTT, YouTube 사용에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거나 우울감으로 이어지는 기재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스타그램을 종종 사용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SNS에 올린 게시물 들을 보면 내 우울감에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내가 SNS에 사진 등을 올린다고 내 우울감이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재미있는 예능 프로그램 위주로 보고 주로 퇴근 후나 주말에 이용하는 편인데요. 유튜브 보면 시간을 소모하는 걸로 느껴져서 하루에 많은 시간을 보내지는 않으려고 해요.”[인터뷰 대상자 A]

“혼자 살 때는 유튜브, 게임 등을 하루에 평균 두 시간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혼자 있으면 SNS나 유튜브에 더 의존하게 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사회적 고립감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는 것은 아닐까 싶어요. 사실 할 때는 재미있는데 하고 나서는 후회랑 아쉬움이 남죠.”[인터뷰 대상자 B]

반면, OTT, YouTube가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우울감과 외로움 등을 완화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의견도 존재하였다. C는 사회적 고립감이 심했을 때, 혼자 있는 적막감을 달래기 위해 OTT, YouTube 등을 이용했고, 드라마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했다고 답했다. 또한 이후에 친구들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소재가 되기도 하면서 사회적 연결망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한 부분이 있음을 언급했다. 다만, 이러한 긍정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너무 긴 시간을 소모하거나 의존하는 경우에는 앞선 A와 B와 마찬가지로 시간을 비생산적으로 소모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고립감이 가장 심했던 시기에 유튜브나 OTT를 이용해서 드라마를 24시간 틀어놔서, 소리가 주는 안정감이 있었는데, 아무 소리가 없으면 공간에 나만 있는 것 같아서 불안했거든요. 또 드라마를 정주행하면서 위로를 받기도 했는데, 공감가는 내용도 있고 간접적으로나마 나 말고도 사회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나중에는 친구들과하고 대화할 수 있는 소재도 되고 소통 창구의 연결고리 역할도 했던 것 같아요.

고립감이 점차 완화되고 건강도 되찾고 했을 때는, 드라마만 보는 내가 한심하게 생각이 되어서 좀 더 생산적인 일을 해보자 싶었고 그래서 뜨개질도 시작했던 거 같아요.”[인터뷰 대상자 C]

(3) 사회적 고립의 내부적 차원: 개인의 노력 및 의지 정도

① 사회적 고립 인지

사회적 고립은 개인의 특성이나 상황 등에 따라서 같은 상황이라도 다르게 인식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개인이 사회적 고립을 얼마나 인식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사회적 고립 정도 및 사회적 고립감을 인식하는 정도의 차이가 사회적 고립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인터뷰 결과 사회적 고립을 느끼는 요인과 정도는 각자 개인마다 달랐으나, 주로 혼자 있는 시간에 사회적 고립감이 증가하는 특성을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부모님이나 가족과 함께 있을 때 사회적 고립감이 완화되고 심리적으로 안정되는 경향이 있었다. B의 경우 2년간의 자취 경험 이후에 최근 본가로 이사하면서 다시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혼자 지냈을 때 느꼈던 고립감과 외로움이 부모님과 함

게하며 완화되고 안정되는 것을 경험한다.

“혼자 자취했을 때는 특히 밤늦게까지 잠 못들 때,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사회적 고립감을 느꼈어요. 뭔가 복합적인 감정이 작용했던 거 같은데 혼자 살 때와 비교하면 부모님과 같이 사는 지금은 사회적 고립감을 훨씬 덜 느껴요.” [인터뷰 대상자 B]

인터뷰 대상자는 대부분 자신을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사회적 고립감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 혹은 언제 사회적 고립감을 심하게 느끼는지 인지하고 있었다. 이처럼 본인 스스로 사회적 고립감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이 느끼는 사회적 고립감은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사회적 고립 정도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 정도에 차이를 보였다.

“저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평일에 퇴근하고 집에 와서 10시가 넘어가면, 그 고요한 시간에 고립감이 커져요. 특히 주말에 혼자서 하루 종일 빈둥대거나, 혼자서 밥을 먹으려고 집 근처 식당에 슬리퍼 차림으로 가서 앞을 서성일 때 사회적 고립감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인지 신체적으로는 건강해도 심리적으로는 우울함이 있어요.” [인터뷰 대상자 A]

“제가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느낀 사회적 고립감은 섬에 나 혼자 있는 느낌이었던 거 같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 해도 내가 괜찮아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있었어요. 사회적 고립감이 가장 심했을 때는 5점 만점 기준으로 했을 때 5점으로 심했어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안 좋았는데, 공황장애도 있었고, 위장장애로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약을 늘 들고 다녀야 했죠.” [인터뷰 대상자 C]

② 사회적 고립 탈출 의지 및 시도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는 개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사회적 고립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한 경우도 있었고, 사회적 고립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 A의 경우 굳이 지금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답한 반면, B와 C의 경우 사회적 고립감에서 벗어

나기 위한 의지가 있었고 실제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실천해 보기도 하는 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밤낮이 바뀐)생활패턴을 먼저 바로잡기 위해서 밤을 새고 아예 일찍 등교하기도 했어요. 생활패턴이 무너지면 불안함이 더 증폭되었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아보려고 노력했었던거 같아요.”[인터뷰 대상자 B]

“항상 늘어져 있는 것에 대해 죄책감이 들어서 일부러 외부 활동을 하려고 이것저것 신청도 해봤어요. 그때 의정부 문화재단의 작은연구 지원사업을 신청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괜찮아지기 시작한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연구를 진행하면서 학교 밖에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중간 및 최종보고 등을 할 때 담당자분께 굉장한 환대를 받았거든요. 그전에는 무력감을 느꼈다면, 그곳에서 제 연구 내용을 고마워하는 것을 보고 효능감이 높아졌어요. 작년 말에 연구를 끝내고 나서는 이제 나도 사람을 좀 만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인터뷰 대상자 C]

이처럼 사회적 고립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의지나 노력 등은 개인의 성향이나 사회적 고립 정도에 따라서 차이를 보였으나, 사회적 고립 문제를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최근 현대사회의 청년들에게 사회적 고립 문제가 매우 중요하고 일상생활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영국에는 외로움 부서도 있다고 들었어요. (사회의) 전반적인 성장을 생각한다면 사회적 고립 같은 부분도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것 같아요.”[인터뷰 대상자 A]

“평소에는 (외로움 등 부정적 감정) 잘 느끼지 못하더라도 안 좋은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사회적 고립감이 영향을 미쳐서 부정적인 감정이 안 좋은 단계까지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회적 고립감은 감정소모나 정신적 스트레스 측면에서 생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것 같아요.”[인터뷰 대상자 B]

(4) 사회적 고립의 외부적 차원: 거주지 주변 생활환경

① 거주지 인근 생활환경 인식 및 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고립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 생활환경의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고립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데이터 분석에서 파악하기 어려웠던 개인의 거주지 생활환경 인식 및 만족도에 관한 내용을 심층 인터뷰를 통해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거주지의 생활환경이 사회적 고립에 미치는 영향과 주요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거주하는 지역 및 동네에 대한 주요 인식은 개인의 주거 환경 및 해당 지역에 거주하게 된 동기와 이유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개인의 경제 수준과 더불어 직장 및 학교 등의 생활패턴에 따라 거주지역 선정에 영향을 받으므로, 상대적으로 경제적 불안감이 크고 생활이 안정되지 않은 청년층의 특성상 주거지역 선정이 개인의 선호보다는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이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금 거주하는 곳은 아버지와 동생, 저의 회사 위치를 고려하여 정한 거지 큰 이유는 없어요.”[인터뷰 대상자 A]

“학교 인근에서 자취를 했는데, 자취했던 동네를 떠올리면, 그때(거주할 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자취하던 곳으로 가는 길이 싫게 느껴져요. 뭔가 부정적인 느낌이 드는데, 아무래도 경제적인 여건에 맞추다 보니 살았던 곳이 만족감이 큰 집은 아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인터뷰 대상자 B]

“저는 학교 기숙사에 살고 있는데, 기숙사는 집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집이 없다고 생각해요. 혼자 있을 수 있는 장소일 뿐이죠. 기숙사는 책상, 침대가 고정된 위치이기 때문에 이 배치가 나에게 맞지 않아도 그대로 써야 해요. 그래서 나의 공간을 얻었다는 느낌보다는 그 공간에 내가 얽혀산다는 느낌이에요. 기숙사에 있으면서 맘이 편해지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인터뷰 대상자 C]

거주지 주변 환경에 대한 만족도 부분에서는 개인적인 차이는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공원, 산책로와 같은 자연환경이나 마트 등 생활편의 시설이 잘 갖춰진 곳을 선호했다. 반면, 청년 세대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던 핫플 등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낮았

으며 거주환경 측면에서는 핫플에 대한 중요도와 매력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 근처에 압구정 같은 핫플이 있는데 혼자서 가본 적은 없어요. 가끔 친구들이 오면 가는 정도인데 핫플은 편안하게 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은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공원이 가까이에 있다면 산책도 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인터뷰 대상자 A]

“집 근처에 사로수길 같은 핫플이 있지만 솔직히 핫플 같은 것은 크게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마트 같은 편의 시설이 없어서 불편했어요.” [인터뷰 대상자 B]

“기숙사에서 인근에 있는 산책로의 거리 이런 게 좋았어요. 사람들 산책하는 거랑 애기들도 보고 그러면 정신적으로 환기하게 되고, 기분이 좀 괜찮아졌어요.” [인터뷰 대상자 C]

청년 세대는 취업난 및 경제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주거지 선택의 자율성이 다른 세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고 이주가 힘든 것을 고려할 때, 거주 환경이 미치는 영향에 취약한 세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거주지의 생활환경이 청년의 사회적 고립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더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

② 거주지 생활환경과 사회적 고립의 영향 관계 및 지원 정책

거주지의 생활환경과 사회적 고립의 영향 관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었으나 대체로 영향 관계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주로 공원 및 산책과 같은 자연환경과 더불어 교통시설과 인프라 등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시설 및 환경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주거지의 생활 환경이 사회적 고립감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상황을 겪어도 더 크게 느껴질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외로움과 같은 감정이요. 외적 환경 중에서는 특히 나무 같은 자연환경이 주변에 있다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터뷰 대상자 B]

“주변 환경이 사회적 고립감 해소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해요. 저는 학교 도서관을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런 무의미한 산책을 그전까지 해본 적이 없었어요. 산책을 하니까 정신적으로 환기가 되었던 거 같아요. 반면에 본가(인천)는 집 밖을 나가기 싫었는데, 부모님집의 경우, 생활환경만 보면 고립을 심화시키는 환경이었거든요. 도서관도 걸어서 30분 이상 걸리고, 버스도 잘 없고, 교통도 불편하고 주변에 인프라 시설이 없었어요. 제가 집에 있는 게 싫으면 어딘가 나가야 하는데, 갈 곳이 없었어요.” [인터뷰 대상자 C]

A의 경우 개인적으로 실내생활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거지의 위치나 생활 환경이 사회적 고립감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면, 도서관이나 공원과 같은 시설이 집 근처에 생긴다면 사회적 고립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응답했다.

“예를 들어 집 근처에 공원이 있으면 좋겠어요. 공원이 당장 생기는 어렵지 않나 싶지만 그래도 공원이나 도서관같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들이 접근성이 좋아진다면 기분전환도 하고, 생각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서 사회적 고립 완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대상자 A]

이처럼 사회적 고립감 완화를 위한 지역 정책 및 생활환경 관련 개선 정책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였는데, 주로 외부 활동을 위한 공간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이 주로 제시되었다. 사회적 고립은 사회적인 네트워크의 결여 및 관계의 수준이 낮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해서는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만남의 기회와 장소 제공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적인 사회적 고립감의 완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사회 관계적 부분에서 보면 커뮤니티 활동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어요. 혼자 하면 힘든 것들도 같이 하면 도움이 될 때가 많은데, 이러한 것을 연결해 주는 지자체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대상자 B]

이 외에도 사회적 고립이 경제적 불안감 등으로 인해 유발되는 만큼 경제적인 지원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되었는데 특히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한 시설과 장소 제공의 중요성이 주로 언급되었다.

“경제적인 지원이 가장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일자리 창출 같은 제도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한 인프라 시설 부분에서 생활 편의 시설이 좀 더 잘 마련되어 있으면 좋겠어요.”[인터뷰 대상자 B]

“인천에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공간(잡스인청년)이 있는데 그런 곳이 있으면 좋겠어요. 밖에 나가고 싶을 때 돈을 쓰지 않고 갈 수 있는 공간이 잘 없거든요. 내가 뭔가 하고 싶을 때, 돈이 드는 일인가를 1순위로 생각하게 되는데 무료로 갈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있나 생각해 보면 잘 없어요.”[인터뷰 대상자 C]

물리적인 장소뿐만 아니라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였는데 프로그램의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고립에 놓여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단순히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도 어렵지 않게 참여가 가능한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이 되었다. 이미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커뮤니티 속으로 들어가 자연스럽게 적응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것이다. C의 경우 누구나 언제든지 참여가능한 프로그램과 커뮤니티를 강조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본인이 느끼는 이방인의 감정에 대해 힘들음 토로하기도 하였다.

“이미 조성된 커뮤니티에는 들어가기 어려워요. 동네 커뮤니티를 생각하면, 독서 모임 지원 사업이 있어서 여길 찾아봤는데 이조차 원래부터 쪽 하던 사람들 다 차 있는 거예요. 나의 자리는 또 없는 거죠..., 또 본가 근처에는 작은 도서관이 있었는데, 교회에 소속된 곳이어서 거긴 주로 교회 사람들만 사용하는 곳이었어요. 저기 가면 내가 너무 이방인처럼 느껴져서 가기 어려웠어요.”[인터뷰 대상자 C]

또한 커뮤니티 활동에 관한 프로그램 중에서는 새로운 커뮤니티에 대한 기회 외에도 자기계발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통해서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길 희망했다.

“최근에 글을 써보고 싶은 맘이 생겨서 문화센터 같은 곳에서 지원하는 글쓰기 교실을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마땅한 프로그램이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대부분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쉬운 맘이

들었어요. 지자체나 문화센터 등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에서 2030을 대상으로 가볍게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인터뷰 대상자 A]

“글쓰기 모임도 찾아봤는데 여러 지자체 홈페이지를 다 들어가 봐도 관련 프로그램이 잘 없더라고요. 대신 독서모임을 찾았는데 제가 관심 있었던 것은 정신 분석, 심리분석 같은 거였는데 이미 운영되고 있는 모임은 주제가 고전문학 같은 거였고 모임 자체도 성격이 다양하지 않아서 아쉬웠어요.”[인터뷰 대상자 C]

이 외에도,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심리적 정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위한 심리상담 및 정신과 치료비용 지원, 치료와 연계된 네트워킹 프로그램 제공 등이 사회적 완화를 위한 지원 제도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06. 연구의 결론

1_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최근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사회적 문제 중 하나로 여겨지는 청년의 사회적 고립 문제에 주목하여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기존의 연구들이 제시한 다양한 관점의 사회적 고립 개념들을 정리하고 종합하여 사회적 고립을 재정의하고 그 의미를 구체화하였다. 또한 소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을 측정하는 기존 선행연구의 한계를 넘어서, 빅데이터와 도시 지표를 기반으로 서울시 행정동 단위의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 수준을 정량화하고 그에 미치는 도시 생활환경 요인을 규명하였다는 점이 본 연구의 가장 큰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는 청년의 사회적 고립 유형을 경제적 불안정성, 사회활동, 고립형 생활, 사회적 관계 4가지로 구분하여 고립 수준을 지수(index)화하였다는 점이다. 각 고립의 유형별로 취약한 지역들이 상이하다는 것을 밝혔으며, 특히 경제적 불안정성 유형의 경우는 강남구 일대가, 사회활동 유형에서는 강북의 도심 일대에서 고립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고립형 생활 유형에서는 관악구와 도봉구 일대에서 고립이 높았으며, 사회적 관계 유형에서는 강남구에서만 현저하게 고립 수준이 낮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유형들을 모두 종합해서 서울시 청년의 종합적인 고립 수준을 파악한 결과 중구, 관악구, 종로구 등의 지역에서 청년의 사회적 고립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렇듯 각각의 유형의 특징에 따라 지역별로 사회적 고립 수준이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밝혔으며, 서울시 행정동 단위에서 고립 수준의 세부적인 차이를 명확하게 규명하였다.

또한 청년의 사회적 고립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시 생활환경 측면에서 밝히고자 하였다. 지역의 도시 생활환경은 청년들의 고립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이

매우 유용하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상권 발달 등에 따른 주거비 부담과 생활비 부담의 가중은 청년들의 고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어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은 주거 및 경제적 측면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 것임을 규명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서울의 폭발적인 부동산가격 상승과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의 현상과도 직결됨을 시사한다. 이외에도 청년들이 고립되면서 사회적 관계가 축소되는 경향이 많은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생활 환경적 측면에서 예술·스포츠·여가 시설들을 풍부하게 제공하는 방법이 청년들이 타인과 네트워킹하는 기회를 증진시킬 수 있음을 규명하였다.

정량적 분석에서 밝히기 어려웠던 개인적 차원의 사회적 고립 유발 요소를 분석하기 위해 사회적 고립을 느끼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개인의 내부적인 특징 및 상황에 따른 차이점은 있었으나 공통적으로 주거 불안, 경제적 불안이 사회적 고립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또한 혼자 생활했을 때 불안감이 더욱 높아져 사회적 고립감이 증폭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생활환경에 따른 영향 요인의 경우, 산책이 가능한 공원과 같은 근린시설이 사회적 고립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존재하여 지역의 생활환경 요인이 고립을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청년 세대에게 중요하게 여겨져 왔던 일명 핫플레이스와 같은 상권들은 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오히려 고립 수준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4장의 정량적 분석과 5장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공통적으로 확인된 결과로써, 청년의 고립 완화에는 상권의 발달로 인해 누리는 여러 가지 편익보다는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황과 주거 안정의 여부가 매우 중요함을 규명하였다. 이와 더불어 청년들에게 교육이나 자아실현을 위한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2_정책적 함의

서울시 청년의 사회적 고립 수준을 다각도에서 살펴보고, 정량적 분석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 사회적 고립 완화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서울시 청년의 사회적 고립 완화의 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청년의 사회적 고립은 대부분 경제적 불안에서 기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경제적 불안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탐색하고 이와 관련된 지원 정책을 고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도시 생활환경 차원의 분석과 심층 분석을 기반으로 했을 때, 주거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면 청년들의 경제적 불안이 완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주목할 것은 주거 자체의 질보다는 주거비나 주거 안정성에 대한 부분이 더욱 크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정기적인 소득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으로 주거비를 감당할 수 있는 경로의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효력이 나타나기까지 상대적으로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그 기간 동안 청년 임대주택 등을 확대하여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년들의 고립감 완화를 위해 도시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여기서의 도시환경은 고도로 발달한 상권이나 인프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권 발달의 여부는 청년들에게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키는 요소였으며, 정돈되고 걷기 좋은 산책로, 공원과의 접근성, 우수한 자연환경 등이 청년들의 고립형 생활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 및 1인가구 밀집 지역을 주변으로 하여 도시 환경을 잘 정비하여 그들이 실내에만 있지 않고 산책, 등산과 같은 활동의 횟수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셋째, 청년들은 자아실현이나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통해 고립감을 완화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문화 활동의 기회를 확대하고 더불어 청년센터 등에서 다른 청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문화 프로그램들을 고안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초기에는 독서나 글쓰기 프로그램과 같은 소극적 문화 활동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이러한 문화 활동들을 하면서 형성된 커뮤니티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안하여 청년들이 타인과 상호작용하며 적극적 차원의 문화 활동까지 이어질 수 있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프로그램들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종합 고립지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구, 관악구, 종로구 지역에서 청년들의

고립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해당 지역들을 대상을 선제적인 정책 적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구에서도 장충동, 관악구에서는 대학동, 종로구에서는 혜화동이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기준으로 사회적 고립이 가장 높기 때문에 해당 동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중점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해당 지역들은 모두 대학가 주변이라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최근 과열된 취업 경쟁, 높아진 임대료 등은 청년들, 특히 대학생들에게 불안감을 증가시킬 수 있고, 이런 지역들은 1인 가구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높아진 우울감과 고립감을 쉽게 해소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이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사회적 관계 형성 및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 정책들이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사회적 고립은 외로움과 우울증과 같은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 거주하면서 우울감을 느끼는 청년들에게 무엇보다 심리적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울증 환자의 5명 중 1명은 20대 청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해당 연령층에서 타 연령층에 비해 우울증을 앓고 있는 환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므로(김혜선, 2022), 청년들의 우울증과 정신건강 문제 역시 중요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청년들의 심리적 차원의 건강과 정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고립을 겪고 있는 청년들은 경제적 부담 등의 이유로 쉽사리 우울증 치료 및 의료서비스 등을 받기 어렵거나 접근하는데 장벽이 있기 때문에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청년들이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증진시키고 마음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으며, 이는 청년의 사회적 고립 완화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청년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충분한 지원과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문논문]

- 김재희, 박은규(2016). “청년의 성인초기 발달과업 성취유형이 사회적 고립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7(3), 257-284.
- 노가빈, 이소민, 김제희(2021). “청년 은둔형 외톨이의 경험과 발생원인에 대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73(2): 57-81.
- 박은주, 박정윤, 김정은(2020). “대학생의 성인모색기 인식과 부정적 정서의 관계”, 『생애학회지』 10(2): 1-25.
- 박찬웅, 배영(2016). “사회적 연결망의 특성과 우울: 연결망의 유형과 크기, 밀도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9(4): 61-77.
- 박찬웅, 김노을, 유부원, 윤민지(2020). “한국 사회의 사회적 고립과 사회인구학적 특성”, 『한국사회』 21(2): 41-73.
- 서영석, 안수정, 김현진, 고세인(2020). “한국인의 외로움(loneliness): 개념적 정의와 측정에 관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9(2), 205-247.
- 유민상, 신동훈, 이민정(2021).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558.
- 윤철경, 서보람(2020). “은둔형 외톨이 현황과 제도적 지원의 정립. 서울시 은둔형 외톨이 현황과 지원 방안 토론회 자료집”,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 이민아(2013). “사회적 연결망의 크기와 우울: U자형 관계와 대인신뢰의 조절효과”, 『한국사회학』 47(4), 171-172.
- 이상철(2017). “농촌 노인의 사회적 고립이 치매에 미치는 영향: 전기노인과 후기노인 비교 분석”, 『사회복지연구』 48(2), 143-171.
- 이용호, 박로사(2021). “청년의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73(3), 91-121.
- 이정봉(2021). “이행기 관점 청년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21(8): 1-21.

정은주, 정봉현(2017). “고립사와 사회적 배제에 관한 도시 공간적 접근”, 『도시행정학보』 30(2), 131-152.

조미형, 고아라(2022). “사회적 고립 청년은 누구인가? - 고립청년 지원사업 참여 청년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74(4), 127-152, 10.20970/kasw.2022.74.4.005.

최지현, 조미형, 이승영(2022). “청년의 사회적 고립 측정 척도 개발”, 『한국사회복지학』 74(2): 53-78.

황수진, 홍진표, 안지현, 김명현, 정서현, 장혜인(2021).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신경정신의학』 60(4): 291-297.

홍진주(2020). “청년니트의 사회적 배제”,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영문논문]

Achterbergh, L., Pitman, A., Birken, M., Pearce, E., Sno, H., and Johnson, S., 2020, “The experience of loneliness among young people with depression: a qualitative meta-synthesis of the literature”, *BMC Psychiatry*, 20(415): 1-23.

Arnett, J. J., 2007, “Emerging adulthood: What is it, and what is it good for?”,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s*, 1(2): 68-73.

Child, S. T., and Lawton, L., 2019, “Loneliness and social isolation among young and late middle-age adults: Associations with personal networks and social participation”, *Aging & Mental Health*, 23(2): 1-9.

Cornwell, E. Y., and Waite, L. J., 2009, “Measuring social isolation among older adults using multiple indicators from the NSHAP study”,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64B(suppl_1): i38-i46.

Daniel, S. S., and Goldston, D. B., 2012, “Hopelessness and lack of connectedness to others as risk factors for suicidal behavior across the lifespan: Implications for cognitive-behavioral treatment”, *Cognitive and Behavioral Practice*, 19(2): 288-300.

Fine, M., and Spencer, R., 2009, *Social Isolation: Development of an Assessment Tool for HACC Services*, Sydney: Macquarie University.

Griffin, J., 2010, *The lonely society?*, London: Mental Health Foundation.

Hämmig, O., 2019, “Health risks associated with social isolation in general and in young, middle and old age”, *PLoS One*, 14(7), e0219663.

Hawthorne, G., 2006, “Measuring social isolation in older adults: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friendship scale”, *Social Indicators Research*, 77: 521-548.

Marsden, Peter V.(1987). “Core discussion networks of American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6: 112-131.

Sansoni, J., Marosszeky, N., Sansoni, E., and Fleming, G., 2010, Final Report: Effective Assessment of Social Isolation, *New South Wales*: University of Wollongong.

Zavaleta, D., Samuel, K., and Mills, C., 2014, Social Isolation: A Conceptual and Measurement Proposal, *OPHI Working Papers* 67, Oxford: University of Oxford.

Zavaleta, D., Samuel, K., and Mills, C., 2017, “Measures of social isol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131(1): 367-391.

[단행본]

김춘남, 박승민, 박승희, 김서인(2018). 「사회적 고립의 유형분석 및 지원방안」 경기: 경기복지재단.

김현호, 이재연, 김도형(2021). 「국가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소멸 방지전략의 개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서울특별시(2022).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사이토 다마키(2012). 「은둔형 외톨이: 그 이해와 치유법」 파워북.

조미형, 최지현, 이승영, 최보라(2021). 「청년의 사회적 고립 측정 척도 개발」 서울: 생명역전화종합사회복지관협동조합 함께하는연구.

[언론기사]

강승현, 2021.12.23, “1인가구 경제적 어려움… 다인 가구보다 더 크다”,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1223/110915679/1>

김혜선, 2022.06.24., “우울증 환자 5명 중 1명은 ‘20대’...타 연령대 압도”,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046726632365000&mediaCodeNo=257>

이종현·양범수, 2019.09.03., “급증하는 청년층 파산…마지막 단계는 ‘소액결제 깡’”,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2/2019090202075.html

작은연구 좋은서울 23-03

서울시 청년의 사회적 고립지수 도출과
생활환경 분석을 통한 정책 제언

발행인 박형수

발행일 2023년 12월 20일

발행처 서울연구원

비매품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이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